

웨신총회 2011 전국교역자 하계수련회 가져

『교단화합과 발전에 저해되는 일보다 협력하는 일에 힘써 달라』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2011년 전국 교역자 하계수련회를 지난 6월 13일(월)부터 15일(수)정오까지 2박3일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 콘도미니엄에서 개최했다.

『성령으로 뜨겁게』(행 1:8)라는 주제를 정하고 ‘하서 오심시오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는 대회장 성경홍 총회장의 환영인사로 거행된 2011년 웨신총회 수련회는 교단 통합과 화합으로 한층 더 강화되고 결속된 가운데 총회 직영신학교와 인준신학교에 총회주일 특별헌금을 전달했다.

(10면에 계속)



웨신총회 2011 전국교역자 하계수련회를 마치고

민간 외교의 결실, 5회째 6·25 미 참전용사 초청행사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 전해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는 한국전쟁 61주년을 맞이하여 참전용사들에게 진 마음의 빛을 조금이나마 갚겠다는 충정에서 올해로 5년째인 6월 15~20일까지 참전용사와 가족 등 40여 명을 초청해 판문점과 용산 전쟁기념관, 한미연합사 등을 방문하고, 17일에는 천인환이 전시돼 있는 평택 2합대를 둘러보았으며, 수원에 있는 삼성전자를 둘러본 뒤 저녁 8시부터는 새에덴교회 3층 프라미스홀에서 한국전쟁 상기 및 한미우호증진 예배가 치러졌다.

김재일 장로 사회로 만찬이 시작되고 소강석 목사는 환영사에서 6.25 그날을 회상하고 전쟁의 아픔과 참혹한 비극뿐인 우리민족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며,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했다. 또한 소 목사는 이 자리가 한.미간의 우호를 증진시키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려준 모든 참전용사들을 향해 감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원했다.

소 목사는 이날 ‘피로 맺은 행렬의 우호연약’이란 설교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민간 외교의 결실, 5회째 6.25 미 참전용사 초청행사

낯선 이국땅에서 피 흘리며 싸웠던 용사들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며 “13만5000명이 피를 흘렸기에 한국은 미국과 참전용사의 사랑을 잊을 수 없고 미국 또한 한국을 저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쟁의 폐해 속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과 G20정상회의 의장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힘썼다. 18일(토)에는 서울타워에 올라 60년 전 폐허를 딛고 재건된 서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초청받은 참전용사 노병은 이번 새에덴교회의 초청으로 한국사람들의 뜨거운 감사와 우정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며, 자신과 친구들이 생명을 바쳐 지켜낸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그간의 무거웠던 마음을 풀고 갈 수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새에덴교회는 고유한 복음활동과 역사적 책임의식, 對 사회적 섬김과 나눔, 국제적 봉사와 민간외교에 충실한 교회로 성도 3만여 명에 이르는 한국 기독교계의 모범교회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7년에 미국 마틴루터킹 국제평화상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 종교인으로 선정되었던 소강석 목사는 민간 외교하는 종교인으로 평화의 꽃씨를 뿌리는 피스메이커로, 언론과 문화와 소통하는 한국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또한 소강석 목사는 22일 미국 워싱턴의 국회 의사당에서 한덕수 주미 대사와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이 참석하는 한·미 우호행사에 참석한다.

아픈 6월, 상처가 용이 되어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서라

아픈 6월을 생각한다.

6·25 민족상잔의 비극과 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6·10항쟁의 상처 등 6월은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호국의 달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상처다. 상처는 살아있는 자의 증표요, 특권이다.

죽은 자는 아픔도 상처도 없다. 인류의 역사는 크고 작은 상처의 기록이다. 상처의 결과는 돌로 나타난다. 하나는 파괴와 소멸이요, 또 하나는 그 상처가 용이가 되어 단단해져, 수백년 묵은 소나무나 백향목처럼, 궁궐 성전을 지을 때, 대들보 기둥감으로 사용되는 창조적인 에너지가 된다.

하나님은 고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인류역사의 열강 속에 끼어있는, 작은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4천년 역사를 보면, 이집트, 헬라, 바빌론, 페르시아, 로마 등에 지배당하면서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살아남아 인류역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remnants를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게오르규의 ‘25시’에서처럼 세계 2차 대전의 찌터미 속에 온갖 상처를 안고, 불탄 그루터기로 살아남은 무지한 농부 ‘요한 모리츠’ 가족이 있다. 그들은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여덟 가족처럼, 인류의 새로운 종자로, 새 역사의 농사꾼으로, 하나님나라, 역사의 증인witness 알라바이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남은 자remnants다.

이 흑독한 역사의 겨울을 오

래 견디고long suffering, 살아남은 자remnants가 새봄에 새 역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때에 세워진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신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선민 이스라엘의 4천년 역사와 흡사하다. 주변 강대국에 수백 번씩 침략을 당하면서도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 그리고 21세기의 열강의 대열에 우뚝 서있다.

60년 전 전쟁의 찌터미 속에서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살던 우리는,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했고, 세계를 끌고 가야 할 G20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최하는 의장국이 되었다. 경제 10대 강국에다,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고, 한류문화 열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한 시대, 하나님의 때, 역사의 중심에 우뚝 선 것이다. 반도막의 작은 나라 우리민족을, 하나님께서 일백년의 짧은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

우리를 영적인 선민 이스라엘로 만들어 세계역사의 중심에 세우셨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민족을 영적인 장자로 세우신 것은 세계 열방을 향해 서 복음의 장자노릇을 하라고 세우신 것이다.

아픈 6월이다. 우리 모두 손 잡고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이 단단한 용이가 되어 6월의 푸름으로 활활 피어나길 기원한다.

소진우 목사 2010년, 2011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스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리이즈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2010년 1월
4-7 도복산기교회(임예제 원장)
10 대명교회(오봉석 목사)
11-13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7 마가다리교회(한보영 원장)
17-18 경향교회(한원희 목사)
17-19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6-20 신광교회(조호원 목사)
24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5-27 신일교회(최세걸 목사)
28 갈매산기교회(임예제 원장)

2010년 2월
1-3 한샘교회(천복수 목사)
7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9-10 독산교회(김의대 목사)
10 삼마울신교회(권동희 목사)
15-19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1 평택중앙교회(김윤복 목사)
22-24

2010년 3월
불철축복대심방
7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1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0 화랑교회(윤호규 목사)
20 동서울신교회(라베동 목사)
20-1 갈매산기교회(임예제 원장)

2010년 4월
5-7 도원교회(유순기 목사)
12-13 경기교회(이영주 목사)
13-15 효진교회(이영주 목사)
18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9-21 이레교회(황승주 목사)
21 통영기독교인연합회(마수교회)
26-30 신교자방문

2010년 5월
3 원동소망교회(김영호 목사)
9 성문교회(이종래 목사)
10-12 새암교회(김영식 목사)
16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7-20 광운기독교회(한태 원장)
20 갈매산기교회(임예제 원장)
23-26 미원교회(이종원 목사)

2010년 6월
31-3 장두기독교회(김진호 원장)
6-10 신령부흥교회(배복교회)
8 성소기독교회(박정원 원장)
13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4-16 열방교회(신복현 목사)
18 일산금관교회(주성민 목사)
21-24 갈매산기교회(이영진 원장)
25 한림산기교회(이영진 원장)
28-30 동산한림교회(이수근 목사)

2010년 7월
5-7 성신교회(이명배 목사)
11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2-16 신화교회(홍복영 목사)
19-22 에비디움교회(이영진 원장)
23 21세기성령회 운동본부(한정희 목사)
26-29 일보신기교회(김종현 목사)

2010년 8월
2-5 수도산기교회(이영진 원장)
8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9-12 성산중앙교회(김승원 원장)
16-18 경성교회(이정근 목사)
23-25 진영오산교회(한정희 원장)
26 안평교회(김종현 목사)
26-27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30-9.1 푸른초성교회(김종현 목사)

2010년 9월
5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6-8 퇴계원교회(김종현 목사)
13-16 교단총회
15 정동교회(백현기 목사)
20-24 인도선교회(배길로 목사)
26-28 성안산교회(안성기 목사)

2010년 10월
3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4-6 서곡교회(배영국 목사)
8 한림산기교회(이영진 원장)
11-12 정기교회
12-14 주영교회(김영국 목사)
16 갈매산기교회(임예제 원장)
17-20 동서울신교회(라베동 목사)
22 스기교회(안예제 원장)
24 주님의교회(양한기 목사)
24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5 초대교회(이종희 목사)
26~27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8 장안교회(김종현 목사)

2010년 11월
1-3 신원교회(김영국 목사)
8-10 경천교회(이영진 목사)
15-17 수원평안교회(김영국 목사)
22-24 평안교회(김기정 목사)
26 스기교회(안예제 원장)
28 안보신기교회(이영진 원장)
29-2 안보신기교회(유택진 원장)

2010년 12월
3 갈매산기교회(임예제 원장)
6-8 예수비전교회(김승원 목사)
13-15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0-24 안보신기교회(유택진 원장)
26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7-29 은교교회(소문영 목사)

2011년 1월
1/1 갈매산기교회(임예제 원장)
3-5 통일시립교회(이종원 목사)
7 한림산기교회(이영진 원장)
9-15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13 김리교회(제정세 목사)
16 신마울교회(김동희 목사)
24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4-7 갈매산기교회(이영진 원장)

2011년 2월
31-4 캄보디아 선교대회
6 효창중앙교회(최복대 목사)
7-9 순산교회(김영국 목사)
13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4-17 성산중앙교회(김승원 원장)
20 한림중앙교회(최정원 목사)
21-23 마수교회(천영국 목사)
24 갈매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7-3/2 한림중앙교회(김종현 목사)

2011년 3월
불철축복대심방
7-10 상석교회(권재영 목사)
13-16 원계산기교회(김복현 목사)
20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8-31 은교교회(소문영 목사)

2011년 4월
4-7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7-9 갈매산기교회(임예제 원장)
10-12 정기교회
12-14 성안산교회(안성기 목사)

17 천보산기교회(유택진 목사)
18-20 내곡교회(한정희 목사)
25-27 신일산기교회(이영진 목사)

2011년 5월
2-4 서울서지교회(전도안교회)
9-12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5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6-18 동대천교회(홍우영 목사)
24-25 남양주기독교연합교회(최정 원장)
31-63 신교자방문(사회선교위원회)

2011년 6월
6-8 소망교회(이종원 목사)
13-15 신원시립교회(정승복 목사)
17(금) 갈매산기교회(임예제 원장)
20 새빛교회(신기정 목사)
26-72 삼가교회(김종현 목사)

2011년 7월
4-6 새정교회(이영진 목사)
10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11-15 신원시립교회(정승복 목사)
18-21 스기교회(안예제 원장)
25-27 원주대교회(김종현 목사)

2011년 8월
1-4 금산시립교회(이영진 원장)
7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8-11 평은기독교회(김종현 원장)
12 한림산기교회(이영진 원장)
15-18 갈매산기교회(이영진 원장)
22-25 천보산기교회(유택진 원장)
29-9/1 도복산기교회(임예제 원장)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기도한국 2011 '2만 성도 기도의 함성'

예장합동총회(총회장 김삼봉 목사)는 2012년 교단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19일 오후 3시부터 2만여 성도들로 잡실화 생채육관이 예배와 찬양, 기도의 함성으로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2011 기도한국 대회가 진행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뜨겁게 부르짖었다.

준비위원장 정삼지 목사(제자교회)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 총회장 김삼봉 목사는 대회를 전한 후 대회를 선언함으로 막이 올랐다. 김 목사는 "기도한국이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기도의 끝으로 들어가서, 모든 교인들이 기도 자가 되는 귀한 열매를 맺기 바란다. 고 주분했다.

이어 정진모 목사(낙원교회, 총회 서기)가 기도하고, 골로새서 3:15~17절을 본분으로 '감사가 희망입니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김창근 목사(광현교회)는 "감



예장합동 기도한국 2011 직전체육관

예장합동, 교단 설립 100주년을 예비, 준비기도회 가져

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감사는 기적의 역사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연이어 최복규 목사(대영교회), 유광석 목사(면목중앙교회), 김재호 목사(동신교회) 등은 '대한민국에 복 주심 감사', '우리 교단에 주신 은혜에 감사', '우리 교

회에 주신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인도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전인식 목사(평촌제일교회)의 인도로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통일이 앞당겨지며, 한국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근신하며 깨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박인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을 통해 기도한국대회를 축하를 전했으며, 소강석 목사(삼일위원장, 새에덴교회)사회로 진행된 2부 '회개와 절단'의 시간에는 총신 1회인 송용걸 목사(신천교회, 전 시카고 헤브론교회 담임목사)가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렘14:7~9)는 메시지를 통해 통렬한 회개를 촉구했다.

송 목사는 "내 심장의 복판에 회개의 칼을 꼽겠다."며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거머, 회의비, 공갈, 협박, 권모술수를 일삼는 것을 질타했다. 송 목사는 "바리새들과 같은 종교 무리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거들 일부 영적 지도자들의 행태를 비판한 데 이어 "목회자들도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숫자노름과 재정에만 관심이 있다."며 물량주의에 빠진 교회들을 비판했다.

이어 방성일 목사(하남교회), 조정봉 목사(새하늘교회), 송종완 목사(수원삼일교회), 이경영 목사(인천제이교회)가 순서에 따라 합심기도회를 인도했다.

3부 '헌신과 비전'의 시간은 김인기 목사(서기, 성장교회)의 사

회로 진행됐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와 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하귀호 목사가 축사를 전했고, 길자연 목사(증경총회장)와 김영우 목사(총신재단이사장)가 격려사를 전했다. 양 목사는 "기도한국인 한국 교회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축하했고, 길자연 목사는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격려했다.

이어 고영기 목사(상암월교회), 노충민 목사(광명중앙교회), 김동정 목사(갑포제일교회)는 비전선언문을 낭독했다. 또한 송태근 목사는 '세 가지 방향' (딤후 2:15)이라는 비전의 메시지에서 이 민족과 한국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때 참된 부흥이 있다고 역설하고 노원수 목사(거성교회)는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삼일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고 한 말씀대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으면 희망이 없다."며 "교회의 생명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며 "미국 부흥운동의 불씨를 전파한 건초더미의 5명의기도 용사처럼 그렇게 한국 교회 부흥의 불씨를 지피자."고 강조했다. 기도한국은 2008년 시작 돼 올해로 네 번째 대회를 개최하면서 예장합동총회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기도한국 2011'은 이기창 목사(부총회장, 전주북문교회)의 축도로 3시간여에 걸친 기도회가 막을 내렸다.

예성총회장 석광근 목사 「성결의 빛을 온누리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90회 총회장을 배출한 노원구 하계동 소재 예수소망교회가 담임 석광근 목사의 총회장 취임을 감사하며 임직식을 갖고 교단 발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지난 6월12일(주일) 오후 3시 부총회장 김두성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장 취임 감사 및 임직 예배에서 부총회장 신영목 장로가 기도를 최승덕 장로가 요8:29 성경봉독을 직전 총회장 노희석 목사가 "주와 함께 하는 자"라는 제하의 말씀 선포하고, 증경총회장 오희동 목사와 성결대총장 정삼은 총장이 축사를, 증경총회장 이강호 목사, 조원집 목사가 격려사를, 이철용 목사 축도로 1부 석광근 목사 취임예배를 마쳤다.

이날 직전총회장 노희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예성 총회는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교단이라면서, 이러한 교단의 최고 수장을 배출한 교회가 되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전국교회를 섬기고, 성결의 빛을 발하는데 앞장서 주길"기원했다.

이어 2부 임직에서는 당회장 석광근 목사 집례로 노상원 박동제 장로 장립과 명예권사 및 권사 취임과 집사인수식이 거행되었다. 아울러 축사와 권면 시간에는 증경지방회장 이



총회장 석광근 목사 부부

봉준 목사의 축사, 증경총회장 한양수 목사의 권면, 임직사를 대표해 박동제 장로의 답사, 원로목사회장 김소안 목사의

순서를 받았다. 이날 석광근 목사는 다시한 번 "은 힘을 다해 교단과 지 교회를 섬기겠다"며 굳은 결심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총회장으로 총성을 다할 것'을 다짐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부총회장 신영목 장로와 총회서기 서순석 목사, 총무 최귀수 목사, 장로회연합회장 서종로 장로, 서울북지방회장 노병호 목사와 부서기 박주동 목사, 부회장 유홍렬 목사, 서기 김창렬 목사가 예배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총회장으로 총성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사를 전했다. 특히 교단 산하 모든 교회 부흥을 견인해 나갈 것이며, 성결의 빛을 온누리에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세주부협 실행위원회 열어

17일 오전 서울 상계동에 소재한 빛과 소금교회(담임: 이재갑 목사, 본회 총재)에서 2011 정기총회를 앞두고 4분기 실행위원회

를 열었다.

이날 실행위원 모임은 1부 예배와 2부 회의로 진행 되어, 사무총장 광영민 목사가 사회로 부총재



김효순 목사의 기도와 총재 이재갑 목사가 엠5:15-21 절을 주제로 '부흥사의 삶'이란 말씀을 선포했다. 이 총재는 설교에서 부흥사는 잡자는 자를 깨우며,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함에 있어서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며, 성령 충만 받아야 하며, 성스러운 말을 해야 하며, 법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부총재 장창윤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대표회장 이재원 목사 사회로 시작된 2부 회의로서 자문 정기납 목사가 기도를, 이날 주된 이슈로는 총회장소 및 조직 개편에 있었으며, 자문 정기납 목사의 자문 인사가 있는 후 은혜롭게 마쳤다.

편성국 부장 광영민 기자

저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04-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tpres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팩스 :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부활교회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대표회장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5: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7:30

담임목사 : 이재원

교 회: 459-11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08-1
☎ 031-611-0191, 011-792-0191
e-mail: leepastor0191@hanmail.net

승리교회

표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히



부총재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9:00

담임목사 : 김효순

교 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595-5
☎ 010-3025-4625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교회



담임 지영철 목사와
교우 일동

담임목사 : 지영철

(134-85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9-3
☎ 02)474-1353 011-413-1229



교회 9주년 및 기도원 1주년 설립



담임목사광영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사모와 무일푼으로 개척하여 "세상을 밝혀주는 교회! 인생을 밝혀주는 교회!"란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하여 한자리에서 설립 9주년 및 기도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다하며, 기도원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을 지피는 작은 불씨가 되도록 성실히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흥사로서 한국교회를 섬기며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 · 회 · 일 · 정

5월	· 대주(목) '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성회' (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 · 1일(주) (명백)부활교회(담임: 이재원 목사) 헌신예배. · 2일(월)~5일(목) (인천)세창조 기도원(원장: 김주향 목사). · 30일(월) 경인부흥사회 제1기부흥사 연수강의.
6월	· 대주(목) '예수능력 영성회복 치유성회' (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 · 6일(월)~9일(목) (순천)영성기도원(원장: 최승리 목사). · 29일(목) 경인부흥사회 제2기부흥사 연수강의(호남지역).

"부흥사 기립 및 전국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불교회 · 예수능력치유센터**
http://kmission.onmam.com
☎032-891-0651, 010-2080-0651
담임목사: **곽영민**

세계로개혁신학 · 신대원

합동개역 총회



상임회장

이사장 : 홍 두선 목사
총장 : 신 동수 박사
학장 : Dr . David Kim

학장: 데이비드 김 목사
청주 수곡2동 청주우편집중국 버스정류장 앞
☎ 010-2802-3928 / 070-7581-0012
e-mail: yhk62@hanmail.net

재건 동대구 교회

표어: 좋은 만남 · 행복한 성도



공동회장

기적 의지 유집회 매주 금요일 밤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1:40
수요일 밤	오후 7:30
금요일 밤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매일기도회	자유로이

담임목사: 박 수 영

교 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2(지하철 1호선 신천역 하차, 신암지 이도 옆)
☎ 053-752-8238, 011-9537-8291
e-mail: boas7@hanmail.net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만장-1급-3급자 환영)

원장 : **곽순중** 목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리

주녹자 목사 지저스119 독도지킴이 기도회 열어



취직문을 낭독하고 있는 대표회장 주녹자 목사

독도는 한국 땅! 이란 주제로 지저스119대표회장 주녹자 목사)는 독도지킴이 주회 기도회가 서울 용인구 CTS(기독교방송) 컨벤션 홀에서 지난 25일(수)오후 2시

(사)나라살리기운동본부 지저스 119기도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사무총장 윤요셉 목사 사회로 1부 임장식 및 환영사가 진행된 가운데 대표회장 주녹자 목사가 행사취직문을 낭독했다. 이어 상임회장 이봉룡 목사 사회로 2부에서 김금희 목사(부총재)가 기도를, 유순임 목사(고분)가 설교했다.

또한 배진구 목사(상임고분), 김윤기 목사(상임고분)가 축사를, 최순환 장로(고분), 김신웅 장로(고분), 한윤구 대표이사(마랑진 성지개발사업단), 정치조 대표이사(친환경녹색아카데미), 축사를 맡았으며, 서상식 목사(고분)축도로 마쳤다.

이날 하나님! 독도는 한국의 땅임을 세계만방에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을 정한 대표회장 주 녹자사는 독도를 한국 땅으로 지명하여 주셨음을 고대사와 근대사를 통해 분명하고 명

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은 이 순간까지도 침략적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땅인 독도를 삼키려고 50년이 넘도록 국제사법부나, 국제문화교류단체를 통해 왜곡된 소송 및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이 공개적으로 독도를 포기하는 그날까지 기도의 성



예배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벽을 더욱더 높이 쌓아간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지저스119 독도지킴이 결의문 낭독 합창으로 마쳤다.

한편 제2회 지저스119 독도지킴이(대표회장 주녹자 목사)기도회가 7월 11일 종로구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오후 2시 개최될 예정이다.

21일 결국 한배를 탄 '개혁총회와 전도총회'

전도총회는 개혁총회와 한배를 탔다는 '합동연합예배' 드러



(좌)개혁총회 총회장 조경삼 목사, (우)전도총회 총회장 정은주 목사

'류광수 다락방'전도총회 영입

을 추진해 온 예정개혁총회 영입

파가 21일 전도총회와 한배를 타

고 '영입 축하예배'를 드렸다. 이

에 앞서 다음달 7일 특별총회를

앞둔 한기총이 영입파와 반대파

로 나뉘어 개혁총회에 대해 17일 오후

양분된 총회장측과 비대위측을

불러 상황을 듣고 각종 서류

발급을 유보하는 행정조치를 내

림으로 사실상 행정보류가 내려

졌다.

개혁총회의 '전도총회 영입파'

(조경삼 총회장, 정해송 총무)는

최근 일부 교계언론만 초청, 기자

간담회를 갖고 21일 오후 6시 일

산 컨텍스에서 '전도총회 영입감

사에배'를 드렸다. 또한 함께 자

리한 전도총회 관계자는 "전도총

회는 21일부로 전도총회를 해체

하고 개혁총회에 영입되었음"을

밝혔다. 하지만 전도총회는 회원

교회에 발송한 공문 및 홈페이지

공고에서 '개혁총회와의 합동연합

예배'로 지칭을 할뿐, '총회 해체'

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도총회 홈페이지 공고

에 따르면 두 총회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경주 컨싱턴 호텔에서

'연합 목회자 부부 수련회'를 갖

는다고 예시했다.

한편 예정전도총회 영입을 반

대하는 장세일 총회장대행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예정개혁

부총회장이나 총회장 대행을 말

고 있는 장세일 목사, 부서기 박

영길 목사,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직전 총회장 신용현 목사, 서기

서익수 목사 등은 한기총을 방문

해 예정전도총회 영입 논란에 대

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게다가 예정전도총회를 영입하

겠다는 총회장 조경삼 목사측은

116개 교회밖에 되지 않으며, 전

도총회 영입을 반대하는 측은

1204개 교회이고, 중립은 21개 교

회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한기

총의 회원교단은 자신들에게 있

음을 강조했다. 예정전도총회

영입측은 조경삼 총회장과 정해송

총무가 참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기총은 실사 후 양측 모두에

게 서류 발급을 유보하겠다는 입

장을 밝혔다. 김윤태 총무는 "현

재 한기총 집행부가 업무정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9월 총

회 때까지는 모든 서류 발급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9월 총회

결과를 보고 그 때 판단을 하겠

다는 것이다.

김 총무는 특히 한기총 주요 교

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류광수 목

사 다락방운동 전도총회를 영입

한 문제에 대해서는 "실사위원들

이 다루기보다는 이단대책위원회

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

다.

이같은 한기총 실사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전도총회 반대측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도총회

영입측은 한배를 탄 전도총회와

21일 영입감사에배가 드러졌고,

사실상 총회는 분열된 것이며 9

월 총회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는 7월 7일 한기총 특별임시

총회가 있는 후 한기총이 정상화

되면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 예정이다.

또한 다락방 전도총회는 언론

을 통해 '모든 신앙지도를 개혁총

회로부터 잘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광고형식으로 발표했

다. 이에 대해 많은 교단관계자들

은 조경대, 조경삼, 나용화, 정해

송 목사가 돈 때문에 다락방 전

도총회에 손 벌리는 형태로 통합

된 이유를 설명하고 안타깝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도총

회가 개혁교단으로 영입된 것은

잘된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경인부흥사회 제1기 연수교육 가져

「축도를 맡은 이는 그날 설교자의 메시지 내용의 맥과 대지 정도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축도 하라」

경인부흥사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에서는 5월30일 오전10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소재 열린찬양교회에서 서울 찬양신학연구원, 웨신총회부흥사회, 한국기독교찬양치유포럼의회, 기독교화신문 후원으로 제1기 부흥강사 연수교육을 가졌다.

연수교육에 앞서 사무총장 김영중 목사 인도로 1부 개강예배가 시작되어 기획처장 광영민 목사가 기도를, 연수생 정원도 전도사가 특송을 하고,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는 "부흥사의 관점"이란 주제로 설교한 후 축도로 마쳤다.

이날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는 부흥회 기본상식과 실제에 대해 강의하면서 1.부흥회와 교회를 구분하라, 2.부흥회 설교와 목회설교를 구분하라, 는 등 부흥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부흥사의 자질은 시작과 동시에 찬양과 기도로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라는 것이다. 또한 말씀을 짧게 전할 것을 강조했다.

두 번째 기획처장 광영민 목사는 강의를 통해 "성공적인 부흥회

인도법"이란 주제로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도이며, 집회 장소의 영적인 분위기를 잘 파악할 것과, 강단에 올라서자마자 청중을 사로잡으라, 설교 전 찬송을 2곡 정도 부른 후 통성기도 시켜라, 가급적 빠른 찬양을 하라는 것이며, 설교 시 분위기 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설교의 핵심을 잊지 말고 시간 인배를 잘하라, 며 강의했다.

이어 장창운 목사는 3강에서 부흥회와 반주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밖에 부흥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이어진 4강에서 신언창 목사(웨신총회 총무)는 참된 부흥의 의미와 부흥사의 자질에 대해 강의했다.

신 총무는 1.부흥 역사의 시작과 흐름을,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성장과 역사(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운동(부흥회)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은 어떠한가? 를 설명하고, 2.부흥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열강했다.

이날 대표회장 장창운 목사는 제5강에서 '연합성회의 순서관리



경인부흥사회협의회 부흥사연수교육 기념

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연합성회는 각자의 파트를 종합하여 작품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장 목사는 축도를 맡은 목사가 그날 설교자의 메시지 내용의 맥과 대

지 정도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축도를 하고, 게다가 축도 후 기도 전에 광고를 하게 되면 진행의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축도 이후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 좋으며 열강에 나섰다.

예원교회 문화센터 입당 및 임직감사에배

예정개혁 조경대 목사 축도, 총회장 조경삼 목사 입당축사, 나용화 목사(개신대 총장)가 장로들을 권면....

예원교회 정은주 목사는 28일 (토)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등촌동 소재 램프 문화센터 갈릴리움에서 입당 및 임직 감사예배가 진행되어 장로 90명, 명예장로 10명, 안수집사 124명, 권사 213명, 명예 권사 11명 등 448명의 중직자를 안수하는 임직식을 가졌다.

이날 정은주 목사가 주례를 맡고 류광수 목사(연약이 한을 가지 사 람들"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아

울러 입당 및 임직식에서 축사와 권면이 있은 후 축도로 마쳤다.

한편 나용화 목사(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가 장로들을 권면하고 입당축사에는 (개혁총회)조경삼 목사가 맡았으며, 조경대 목사(개신대원대 이사장)의 축도로 막을 내렸다.



문화센터 입당 및 임직감사에배 후 기념촬영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표어 :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갑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 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 소 : 충남 공주시 봉향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렐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성령하에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일	남매회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주	주안회	오전 7시	3.4층 대 예배소
주	수요예배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주	금요예배	저녁 8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소
주	청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청소년들
주	대학부예배	오전 5시	5층 청소년들
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홀딩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홀딩
주	유초등부	1회 오전 9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주	유초등부	오전 9시	3.4층 대 예배소
주	유초등부	오전 11시	2층 청소년들
주	유초등부	오전 1시 30분	5층 청소년들

담임 모상련 목사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백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3,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생명전화 : 031)378-9349

담임 김능주 목사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라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알파과정	오후6(주일)
디사이틀스	오후 7:30(화)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학교	오전 9:20
WIVA영재교육	오후 1:00(토)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청년부	오후 7:30(토)

한국기독교찬양치유포럼의회

찬양치유사

http://www.0675.us

강사 : 총재 음악박사 장창운 목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문의 및 접수 : 010-5678-9950

장소 : 열린찬양교회(구로보건소 옆)

대한예수교장로회

물댄동산교회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시 00분

주 일 오후 예 배

오전 2시 00분

수 요 예 배

오전 7시 30분

목요찬양치유예배

오전 8시 00분

금 요 예 배

오전 8시 00분

학 생 예 배 (토)

오전 5시 0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5시 00분

8시기도회 (매일)

오전 8시 00분

찾아 오시는 길

(가)신사거리

신사거리

신사거리

담임 송미순 목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평2동 3422

☎031765-9826, HP010-5461-0300

대한예수교장로회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심재호 목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 5동 169-210 5층

☎02951-4331 935-4611 HP 010-6350-4611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능 목사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031353-5830 HP 010-8585-913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광완근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향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 시 낭송 당선작 -

신인당선 작품 (시 부문 장원)

실비가 내리고

새벽이면 누군가 왔다간다
가슴에 별 두른 하이에나 도 왔다 간다

햇빛 환하여 내 죄가 빛나는 날
아픔에 묻어 두었던 그대 몸이 가을 황국黃菊으로
흐드러질 때
먼저 간이의 젖멍을 같은 사랑을 물고 태양을 바라본다.

마루엔 물감 풀다 한숨짓는 장인의 음영
석양 길에 약주 사오던 그림자가 기울어질 때
마음 사뿐히 즈려놓고 해금을 부른다
가슴 도려내며 함께 노래하던 그대의 얼굴
다리 뒤편에 숨겨 다음 세상에 놓아주려 했다

내 바람의 근원은 영롱한 피 한 술
한세상, 푸른 백주로 피를 달래다
누워 죽은 사랑도 있으니
내 가슴에서 슬픈 사람, 볼때기가 빨개질 때
눈이 큰 수국을 열고 다시 언덕을 오르는
마음 앉아 답답한 노새
가버린 내 삶의 등 뒤로 실비가 내린다.

국화

새벽인데,
노란 외등 하나 켜 있다
내 손을 잡는다
그대, 무심코 바라보다가
잠시 우주 같은 그 안에 갇힌다
노란 꽃잎이 한 겹, 한 겹이 나를 포갠다.

이 길은, 노란 꽃 무덤
빨대처럼 길게 뻗어있다
길고 둥근 잎새마다 촘촘히 채워진 점방들
거기 하늘 문이 열리고
그 길 따라 아래에서 위로 기어오르는
배추벌레들의 아귀다툼 속을 비집고
노란 꽃이 피어난다. 그 향기에 취해 정액이 흐른다

가을 새벽인데,
노란 신호등 하나 깜박인다
감긴 손발이 풀린다

평생 건진 건 걸 옷 몇 벌, 잠바와 청바지 한 벌,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또, 신호가 바뀐다.
아직도 가야할 날들이 조금은 남았나보다.
길가엔 노란 외등 하나 켜 있다

신인당선 작품 (시 부문 대상)

나의 희망, 나의 아들이!

사랑은 아프다
가슴은 저리고

마주 바라보기엔
눈이 시리다

내 동지에서 태어나
멀리 떠나보내기엔
뒤 돌아보며 뒤 돌아보며
발길 떨어지지 않는다.

남대천을 떠난
연어 새끼처럼

태평양을 한 바퀴 에돌아
오년 만에 어미가 되어
모친에 돌아 올 때까지

너로 인해 긴긴밤을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나의 밤은
온 몸이 저리고 아프다

내 사랑 내 아들
나의 꿈아

사랑은 아프고
가슴은 저리고

가을 풍경

내일이 세상의 끝일지라도
오늘, 나는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는다

그렇게, 긴 긴 터널 같은
어둠고 아픈 날들이 지나간다
내 가슴팍에 나이트 하나 더 새겨놓고

초라한 한 개의 열매를 맺기까지
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어머니의 아픈 자궁 속에선
죽음 같은 산통의 피가 흐르고

저 푸른 하늘 나는 고추잠자리 좀 보아
갈기갈기 온 몸 찢기는 허물 벗고
땅 밑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날개 펴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까지
몇 번을 죽었다 살아났을까
온몸을 몇 번이나 찢겼을까

울긋불긋 화사한 저 꽃 잎새 좀 보아
자태를 뽐내는 게 아니라
버리고 떠나갈 준비를 하는 거야
손 놓고 내려앉는 연습을 하는 거야

쓸쓸히 바람 한 자락 지나더니
우수수 꽃잎이 진다

당선소감

다시, 학습學習을 시작하며



유덕영 시인

신인당선 작품 (시 부문 장원)

작품 : 실비가 내리고, 외 1편
시인 : 유덕영
• 1956년 4월 3일 생
• 단국대학교, 고려대학교 대학원
• BBC 정보통신 대표이사
• 현, 하늘정원(주) 대표이사
• 하균 문학상 수상
• 연락처 : 010-7629-3537

대추나무 가지 꺾이도록 모진 비바람 불어지는 것은,
가을에 튼실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다. 서릿발 세운
청 보리밭, 푹푹 밟는 것은 뿌리 싹하게 내리라는 농부의
숨은 농심이다. 풍 나무와 풍나뭇잎이 무엇이 다른가. 풍

같은 풍인데,,, 하나는 인방에서, 하나는 들판의 야생에
서,,, 닭과 독수리는 무엇이 다른 가. 똑같은 날개를 가
진 새인데, 하나는 울타리 속 땅바닥에 길들여져, 쉽고
편하게 살려하고, 하나는 천 길 낭떠러지에 가시를 물어
다가 집을 짓고 새끼를 낳아 하루에 수십 번씩 고공낙하
훈련을 시키며, 어렵고, 힘들게 사는 학습學習을 한다.

학습學習이라는 단어는 독수리 훈련법에서 나온 말이
다. 나는 편리하고 인일한 일상을 거부한다. 시골 들판
에서 태어나 야생에 길들여진, 풍 나무이거나, 독수리 새
끼이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문화도로서 새로운 길을 가면
서, 평생 학습學習의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늘 곁에서 체찍질하며 가르쳐 주신 박 영남 교수님께
감사하며, 부족한 저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는 저지스 타임
즈, JTNT 방송 사장님 이하 담당자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그리고 언제나 곁에서 말없이 지
켜봐주며, 마음속으로 응원해준 아내와 가족들에게 고마
움을 전한다.

2011년, 6월 초여름 수락산에서

당선소감

겨울은 견뎠고 봄은 기쁘다



유중희 시인

신인당선 작품 (시 부문 대상)

작품 : 나의 희망 나의 아들이, 외 1편
시인 : 유 중희
• 1958년 8월 8일 생
• 건국대학교
〈문예창작아카데미〉
〈통합논술아카데미〉
〈한국어 아카데미〉
〈신학아카데미 대학원〉과장수로
• 부평 예수한미음교회 담임목사
• 연락처 : 010-5631-0191

겨울은 견디었고 봄은 기쁘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
쁨도 슬픔도 아픈 상처까지도, 나를 활취고 지나간 그 겨
울의 칼바람도, 내 가슴 짓이긴 역센 구두 발자국도, 다
지워져간다.

무덤처럼 덮여 누르던 그 무거운 얼음장의 무게를 이
고, 죽은 듯이 웅크렸던 나의 겨울은, 가슴팍에 나이트 하
나 더 새겨 놓고 갔다. 그때의 아픔과 상처가 아니었다면,
나는 푸석한 솜덩이에 불과했을 것이다.

겨울 빈 들, 광야는 솜을 석탄으로, 석탄을 다이아몬드
로, 만들어가는 대장간이다. 오늘은 새봄, 청 보리 밭 밟
기 하는 날, 겨울은 견디었고 봄은 기쁘다.

알속의 세계에서 밖의 넓은 세계로 눈을 뜨게 하고 새
로운 문화의 세계로 길을 열어주시는 박영남 교수님과 저지
스 타임즈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으며, 나의 버
림목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
한다.

2011, 6월 초여름, 부평에서

심사평



박영남 교수
건국대학 교수,
시인,
문학평론가
저지스타임즈 상임이사

삶은 상처다. 상처는 살아있음의 특권이고, 감격
이다. 죽은 자에게는 상처가 없다. 상처는 우리의
삶에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는 파괴
와 죽음으로, 또 하나는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로 극
대화 된다. 솜과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원소
인, 탄소다. 그러나 왜 이들은 서로의 가치가 전혀
다른가? 똑 같은 원소가 열과 압력과 세월을 얼마
나 견뎠느냐에 따라 보물이 될 수도 있고, 쓸모없는
솜덩이로 끝 날 수도 있다. 이번에 신인으로 등단하
는 유덕영 시인과 유중희 목사는 다양한 경륜과 풍
파들이 자신을 뜨거운 불(火)과 압력과 세월 속
에서 단련鍛鍊시켜 정금正金, 보물로 만들어온 삶이었
다.

유덕영시인의 작품 '햇빛 환하여 내 죄가 빛나는
날, 아픔에 묻어 두었던 그대 몸이 가을 황국黃菊
으로 흐드러질 때, 먼저 간이의 젖멍을 같은 사랑을

물고 태양을 바라본다.' 에서도 연상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중희 시인의 작품, '가을 풍경'에서 도
그렇게, 긴 긴 터널 같은 어둠고 아픈 날들이 지나
간다.

내 가슴팍에 나이트 하나 더 새겨놓고 '저 푸른
하늘 나는 고추잠자리 좀 보아, 갈기갈기 온 몸 찢
기는 허물 벗고, 땅 밑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하
늘로 날개 펴고 높이 높이 날아오르기까지, 몇 번을
죽었다 살아났을까, 온몸을 몇 번이나 찢겼을까'이
번에 신인 작품에 응모하여 시 부문에서 장원과 대
상을 받아, 시인으로 등단하는 두 분은 문학적 소양
뿐 아니라, 많은 인생의 경륜을 통해, 지성과 인성
을 갖춘 분량로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든든하고
가슴이 따뜻한 두 분의 시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진
심으로 축하드린다.

2011, 6월 복사골에서 南井

김덕신 목사 초청,

초교과“성령론 세미나” 열린다

세미나
강사로 초
청된 김덕
신 목사는
국내는 물
론 세계
곳곳에 초
청을 받아
사역에 힘쓰고 있다. 김 목
사는 또한 예스와 성경 연구원장
과 수원제일성서침례교회의 담
임목사이다.



7월 11일(월) 오후 2시부터
13일(수) 정오까지 예정 백석
총회 인천노회 교육부 주관으
로 은혜의교회 김포 수양관(박
정식 목사)에서 열릴 예정이
며, 회비는 1인 5만원, 부부 동
반은 8만원이 된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는 오후
2시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
식사와 교재가 제공된다.
또한 세미나 행사를 담당하
고 있는 김대구 목사는 성경을

보는 인목과 통찰력을 크게 함
양시켜 줄 강사 김덕신 목사를
초청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많
은 목회자들이 교파를 초월하
여 참석할 것을 확실하다고 말
했다.

김덕신 목사 초청 세미나장
소 문의는 김대구 목사(010-
4934-5679)

인천지사 CJTN 편집국 부장
곽영민 기자

목회자칼럼

W.C.C.(세계 교회협의회)란? (3)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제2차 준비위원회는 1939년 1월에 회집하여 W.C.C. 창립총회 날짜를 1941년 8월로 결정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1939년 7월 24일~8월 2일 암스테르담에서 모인 세계 기독교 청년대회도 관여하였는데, 여기에는 71개국의 청년들이 모였으며, 그 청년들의 에큐메니칼 운동열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2차 세계대전과 독일 교회의 이탈로 기인하여 1941년에 모이려던 W.C.C.의 창립총회는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김명혁, 「현대교회의 동향」, (서울 : 성광문화사, 1987, P. 71).

이와 같이 하여 이 세가지 종류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의 운동으로 되는 동시에 또한 W.C.C.에 대하여 각각 하나씩 그 고유의 성격을 기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W.C.C.의 “생활과 사업위원회”(the Commission on Life and Work)

“신앙과 제도위원회”(the Commission on Faith and Order)“세계 선교와 전도위원회”(the Commission on World Mission and Evangelism)를 만든 것이다 (한철하 op. cit 신학지남 1964, 1집 p. 54)

(1) 연혁

1948년 (8월 22일-9월 4일) 창설대회, 화란 암스텔담(44개국, 147교회, 351명) 1954년 (8월 15일-31일) 제2회 대회, 미국 에반스톤(54개국, 179교회, 520명) 1961년 (11월 18일-12월 16일) 제3회 대회, 인도 뉴델리(50개국, 181교회, 625명) * 3억1천 5백만 신도, 1968년 (7월 4일-19일) 제4회 대회, 스웨덴 옘살라(84개국 232교회, 200여명)

2. W.C.C.의 기구

① 총회 : W.C.C.의 최고결정 기관은 총회이며, 총회는 W.C.C.의 회원교회가 직접 임명한 대표로서 구성한다. 총회 대의원수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되 지리적 교파적 배경과 교회의 대소의 형편을 참작 배정하게 되며, 20%까지의 가감은 중앙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나 회원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하여는 중앙위원과 협의 할 수 있다. 대의원은 남녀 교직자 평신도로 하되 최소한 1/3은 평신도로써 편성을 요망하고있다 (박상준 op. cit 기독교사상 1968. 6. p. 64). 그리고 총회는 매 5년마다 한다.

② 중앙위원회 : 총회에 속하는 위원회며 의장 혹은 의장단(6명)과 90명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이며 매년 1회 회집한다. 직무는 총회의 재정위원회가 되며, 총회 재정을 담당하고 실무자 중앙위원의 실행위원회를 임명한다.

③ 실행위원회 : 중앙위원회가 제1차 회의에서 선출하며 동위원회가 재소집 될 때까지를 임기로 정한다. 이 위원회는 W.C.C.의 의장 단장; 중앙위원회의 의장 부의장과 총무는 직권상 위원으로 참석하며, 이들을 제외한 14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2회 정도 모인다.

3. W.C.C.의 회장들(1964년 2월)

① 흐란시스 아이비암경(나이지리아), ② 찰레스 C. 파린씨(미국), ③ A. 미카엘 란지 대주교(영국), ④ 야고보 스 대주교(미국), ⑤ 랄틴 니에몰라 박사(핀란드), ⑥ 데이빗 G 모세스 박사(인도). * ③번은 무신론자를 천국에서 만나게 되리라고 믿는 자이다(국제기독교 연합회 한국지부 두길 1966, P. 82).

4. W.C.C.에 가입된 공신주의의 대표자들의 교회명.

10개 공신국가들은 W.C.C. 내에 스파이를 갖고있다(Ibid p. 83). ① 소련: 러시아 정통교회, 북음주의 기독교 천례회연맹, 조지안 정통교회, 알바니아 사도교회, ②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교회, 체코슬로바키아 정통교회, 북음주의 체코동포교회, 슬로바키아 북음주의교회, 슬로바키아 개혁 기독교회, 아우구스버거인 신조의 북음교회, ③ 헝가리야: 헝가리 루터교회, 헝가리 개혁교회, 헝가리 침례교회, ④ 불가리아: 불가리아 정통교회, ⑤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개혁 기독교회, 슬로박 북음주의교회, ⑥ 폴란드: 아우구스브 신조 북음주의교회, 폴란드 카톨릭교회, 폴란드 정통교회, ⑦ 루마니아: 루마니아 소제 헝가리 루터교회, 신교 북음주의교회, 루마니아 정통교회, 트란실바니아 개혁교회, ⑧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북음주의 루터교회, ⑨ 리투아니아 : 리투아니아 개혁교회, ⑩ 라트비아: 라트비아 북음주의 루터교회.

5. W.C.C. 에큐메니칼 운동과 그 문제점.

(1) 자유주의 및 혼합주의
W.C.C.에 유네테리안(사회활동, 천사없는 종교, 그리스도의 신성부정, 과학, 이성, 진화론적 입장에서 성경해

석), 자유주의자 Barth 주의자, 북음주의자, 정교도, 로마 카톨릭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의 신학 사상이란 혼합주의 입은 뻥한 사실이다. 소위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그 어느 교회 교파를 막론하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축소(縮小)된 최소공배수(最小公倍数)요 공동 분모인 신앙 기초(基礎)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교단이나 교파도 가입에는 어려움이 없게 되어있다. 종신대교수 박형룡 박사가 지적한대로 그들의 근본원리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니, 이는 교리적 해석에는 전적으로 자유보장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석의 자유가 이처럼 다량의 신학적 관점들을 포섭하였으니, 결과적으로는 사상의 모순(矛盾)과 혼란(混亂)을 초래 할 것이고, 자유주의(自由主義) 신학 세력이 이 운동의 주도적 역할이 될 것이며, 교리 개조를 시도할 우려는 물론 너무도 짙다(신학지남 1968. 6. 박형룡 op. cit. p. 10-12).

여기에 참고로 1966년 12월 미국 마리아미에 모였던 N.C.C. 총회에 참석한 대표들의 신앙고백(信仰告白)을 들을 수 있다. 그중에 참석한 200여명중 33%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신앙고백을 할 수 없다고 했고, 36%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부인했고, 31%가 “말세의 실재성”을 의심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Christianity Today, 1967. 7. 21. p. 47).

교회라고 칭하는 모든 단체는 분별 없이 W.C.C.의 기구속에 포함시키려는 포괄주의(Inclusivism)의 결국은 여러 가지 오류를 용납하고 승인하는 결과가 된다. W.C.C.의 전 총무 Visser't Hooft 박사의 말처럼 이 운동의 약점은 “명백히 정의된 신학을 가지지 못한다 있다.....이것은 신학자들이 모이는 곳이요, 아무라도 회담(會談)의 결과로 어떤 정도의 에큐메니칼 신학(Ecumenical Theology)이 나타날는지 미리 알지 못하여 그 내용이 어떠 할런지도 미리 알지 못한다.”(The Ecumenical Review 1, No. 1, 1948). (박형룡 Ibid. op. cit p. 8). 그러므로 저들이 저류(低流)에 갇히고 조용히 흐르는 거센 파도는 그 언제나 문제를 나올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원석 목사
은광교회 원로
본지 성임이사

“성경으로 본 건강학” 자연과 더불어 심신의 건강을!(31)

형성주 박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 : 4-7)

최근에 좀 과장된 것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40대 남성 사망률 세계최고”라는 불명예는 바로 경쟁심의 산물이다. 공교롭게도 40대 남성사망 원인의 1위는 간경변이고 5위는 간암으로 되어있다. 물론 간염의 천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과 관련된 사망이 많은 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시기가 40대라는 것이 문제이다.

왜 하필 40대인가. 그들은 대부분 중간관리자로 각 분야의 실무책임자이다. 위아래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상황인데다가 총동족 경쟁사회가 빚어 낸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다. 즉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오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간에 치명적인 3대요인은 과음과 과식과 과로이다. 모든 것이 마음의 균형을 잃은 결과이다. 경제속도로 달려야 차의 수명이 오래가고 기름의 소비도 적다. 과속으로 일관한다면 차의 수명이 짧아짐은 물론 고장의 위험과 사고의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차는 아길 줄 알면서 자기 몸을 함부로 방치하는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며 정화조이다. 과음(알콜), 과로(정신), 과식(영양분)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적정량을 초과하므로 이런 상태를 계속하는 사람은 마치 숨뿔릴 사이없이 공장 시설과 종업원을 혹사시키는 악덕기업주라 할 수 있다.

과음이 간장을 해친다는 사실은 잘 알면서도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술을 마시지 않는 여성이나 크리스천에게도 간질환이 많은 것은 과로와 과식 때문인 경우가 많다. 특히 간염을 앓은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과로와 과식은 간경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중 과로는 스트레스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과식과 과음은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일이 과로로 인식됨은 벌써 정신적 영역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과로는 반드시 과도한 스트레스를 업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간을 튼튼히 하려면 일과 휴식의 조

화를 이루어야함은 물론 세계 식사를 균형 있게 해야 한다. 이에 반해 “아침은 굶고 점심은 대충 저녁은 왕창”식의 습관은 간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면 별 문제가 아니나 계속되는 습관이라면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 한꺼번에 몰아서 식사를 하면 위장도 문제려니와 간이 어찌 감당하겠는가.

과식에다 운동부족까지 겹치면 비만은 따 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다. 비만인 사람은 지방 살이 많음은 물론 지방의 지방을 간에 축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간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약이라면副作用을 못 쓰는 우리 국민성에 비추어 약의 남용과 오용이 간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간을 튼튼히 하려면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이를 원하지 않겠는가. 아무리 마음을 지키려 해도 안 된다는 데는 할 말이 없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지켜주셔야 확실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기도 가운데 적극적 자세로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최고의 건강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 아닐까.

갑절의 능력을 받자(7)

왕하 2:1-11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1. 2절 : 뱀엘 2. 4절 : 여리고 3. 6절 : 요단

그러나 너무 잘 먹어 한번 비대해지면 갖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마시는 것은 최고로 비싼 것만 팔아서 마십니다. 심지어는 심층수라 하여 바닷속의 물만 찾아 마십니다. 입는 것은 비싼 것 일수록 질 팔린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밍크코트 패션쇼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는 곳은 아파트, 빌라, 주말에는 별장에서 즐기면서 삽니다.

하는 일은 골프, 오락, 게임, 카지노 등 주 5일 근무로 교회에 위기를 초래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준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28:13절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한 서막으로 모세의 출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준비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영적 준비와 육신의 사는 준비는 바로 죽는 날을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80년을 준비하시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노아는 가족 구원을 위해 약 100여년의 준비를 시키며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축복 받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을 준비와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도 3년 사역을 위해 3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 다소에서 출생, 로마시민으로, 베냐민 지파로, 가말리엘 문하생,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기까지 훈련을 시켰습니다.

(2) 모세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 (1) 모세를 강물에서 건짐은 우리가 죄에서 건짐 받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물에서 건짐을 받아 친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는 하나님의 사랑, 동족 사랑을 교육했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굽의 궁전에서 제왕 학을 공부했습니. 그러나 출 2:12에 모세는 40세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게 되자 히브리사람 곁 자기 형제를 치는 애굽 사람을 보자 좌우로 살펴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됩니다.

(2) 처가살이 40년에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주”는 모진 고통과 세월을 통해 명품이 된다고 합니다. (3) 80세가 되자 드디어 지도자로서의 과업이 시작됩니다. 출3:2 뿔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입니다. 그 뿔기나무는 (1) 고난을 상징 (2)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네 발에 신을 벗고라고 명령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외식, 가식, 허식 등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자량과 영광을 벗어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4가지 한계 상황이 있음으로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인간은 죽는다. 2. 인간은 고독하다 3. 인간은 투쟁 한다 4. 인간은 방황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급의 칼날 같은 식민 정책이 철폐와 되어 가는 암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족장들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준비를 성실히 진행해 가셨습니다. 모세가 출생하고, 나일강의 신에게 바쳐 졌지만 애급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고, 모세의 생명을 구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곧 구출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의 사역자로 삼으시면서 출3:11-14“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수1:9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맡기실 때에도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28:20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능력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앞서 계획하시고 실천해 나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인생의 준비기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를 합니다. 천재를 만들려면 그 어머니부터가 천재되어야 합니다. 여자라는 이름도 47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엄마로서는 철학이 있어야 하며, 아내로서는 아름다워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유능해야 하며, 주부로서는 과학적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25:1-13절에는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로 준비한 기름은 순종으로 생활화 된 믿음을 가리킵니다. 주의 재림이 불시에 닥

임용재 장로

강남중앙침례교회



칠 것과, 구원이란 타인이 대신 할 수 없으며, 회개의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며 대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가 연속될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재림을 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마24:36-44 예수님은 재림 직전의 상태를 노아 홍수 전의 원악한 상태에 비유하셨습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은 일상사에 취하여 노아가 심판에 대비하여 짓고 있던 방주를 보고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 다. 마찬가지로 주님 재림 직전의 세대도 재림을 안중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나라의 건설에만 매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도적과 같이 오실 것입니다. 성도는“평안하다”할 때에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위해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뱀후3:11-12에 서는“기뻐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때를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장했지만, 40세 이후의 모세는 때를 잘 못 맞춰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더 큰 훈련의 기회로 미디안 광야를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때를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때를 잘 맞추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게 됨으로 지금까지 종교 분쟁이 계속됩니다. 사울 왕도 때를 잘 맞추지 못해 사무엘이 오기 전에 반제를 드림으로 폐위가 됩니다. 베드로도 때를 잘 맞추지 못해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르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때를 알지 못해 기도보다는 충동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갈4:4 예수님의 생애는 정확한 때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갈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요2:1-11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위대한 기적을 행했을 때에도 때가 되자 행하신 것입니다. 요7:6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7:30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삶의 두 갈래 길



뒤주 속에 사는 쌀 바구미가 장가를 들고 싶어서 뒤주에서 나왔다. 쌀 바구미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창문턱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예쁜 나무바구미가 있었다. “너 어디 사니?” “저기 저 대추나무에 산다.” 쌀 바구미는 수작을 걸었다.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래?”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건데?” “물론, 내가 사는 뒤주 속이지. 아주 쌀 속에 묻혀 살게 돼.” 나무바구미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난 싫어. 날 따라서 대추나무에 가 산다면 모를까.” “기진 추워서 어떻게 사니?” 그리고 먹을 것도 신통치 않잖아.” 나무바구미가 말했다.

“그럼 넌 먹기 위해 사니?” 푸른 하늘을 보며 여행을 다니는 행복을 몰라?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얻는 양식에 대한 기쁨을 모르나구?”

“답답한 바구미로군. 왜 힘들게 여행을 다녀? 일해서 얻은 양식은 또 뭐야? 무진장 쌓여 있다니까 그래.” 나무바구미는 대꾸도 없이 창을 넘어 사라졌다. 쌀 바구미는 집안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옷장 속에 틀러 좁한테 장가를 뒀었다.

그렇게 그날 밤 집주인이 옷장에 약을 뿌려서 쌀 바구미의 신방은 영

안실이 되었다.

길 길 길 저들은 어디로 가는가? 믿음으로 가는 길은 분명 두 길일 것이다. 허나 죽은 믿음으로 가는가? 신 믿음 생명의 길을 보장 받는 믿음으로 가는가?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 선출

“농어촌 어려운 집들을 선택해서 개보수로 문짝수리, 도배 등을 텅 해 전도에 그 목적을 두고, 이 운동을 통해 농어촌 전도로 그들을 구원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기리청소와 환경쓰레기 줄이는데 더욱 힘쓰겠다”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 제5대 정기총회가 5월30일(월)오전 7시 서울 종로5가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어 정재규 목사(대석교회/예신총회 자문)가 만장일치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예장개혁 증경총회장 한창영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예장합동 증경총회장 김동권 목사가 “지도자의 자세”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제5회 정기총회에 들어가 임원의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정관개정을 하고 인원선거에서 정재규 목사가 대표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고문과 지도위원, 명예회장, 상임회장, 운영회장, 본부장, 공동회장, 지역대표, 상임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공동총무, 상임부총무, 부총무, 협동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 사무총장, 사무처장, 등을 호명하며 발표했다.

대표회장 정재규 목사(대석교회)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2002년도 월드컵은 국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근면성과 성결성을 나타내었다. 그때 청소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운동이 많이 펼쳐졌었다. 청소운동은 계속 이어졌으며, 반면에 음식물 쓰레기 없애는 운동과 불 전락운동도 이어진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운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 이 운동은 매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각 구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운동을 해오면서 대형교회

들이 중심이 되어 청소하는 날, 아침에는 구청장이나 혹은 국회의원들까지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을 해왔다.

이처럼 우리 기독시민운동중앙협의회가 그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결국 목적은 전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있고, 착한 일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본을 보이는데 있어서 뜻이 있었다.

또한 정 대표회장은 좀 더 이 운동을 확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며, 먼저 농어촌 지역별로 봉사대를 조직하여 조그마한 농촌교회를 중심 해서 시작하겠다. 하지만 농촌에는 낮 보다 이른 아침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을 통해 좋은 세마나도 열고, 여러가지 위로행사를 해가면서 농어촌분들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농촌 어려운 집들을 선택해서 문짝을 수리해 드리고, 도배도 해드리면서 이 기회에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결국 전도에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이 운동을 통해 농어촌 전도는 이루어지고, 그들을 구원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 일을 하려면 재정문제가 크다. 하지만 염려할 것은 없다. 우리 협의회는 원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동원하고, 협진을 부탁드리면 이 일마다 동참하실 분들이다. 또한 동참하시겠다는 분들로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인원을 동원하려면 차량이 필요한데 교회마다 협조

를 해달라던 차량을 분회 임원들부터 협조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차로 모시는 일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저는 그걸 믿고 있다. 농어촌 전도를 위해서는 연예인들이 동원되어야 하고, 젊은 청년들이 자원봉사자로 동원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각 조를 형성하여 팀을 조직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농촌교회를 찾아가서 만일 숙박이 교회에서 어렵다면 차량을 이용해 인근 여관이나 모텔 등을 얻어 유숙도 가능하게 준비를 할 것이다. 농어촌 봉사활동은 3박4일 내지 4박5일을 정하고 말세에 마지막 이삭줍기 구원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의식개혁이다. 물론 우리 교회 내부의 의식개혁도 중요하다. 첫째는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면서 실천한다는 목표를 두어야 한다. 대표회장으로서 이 일들을 실천하고 싶은 것이 저의 소신이다. 물론 그렇게 될 것이며 진행될 것이다.

첫째는 임원들이 앞장서서 나가면 문제가 없다.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 질 것이며, 농어촌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갈 것이다. 농어촌분들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동원하고, 협진을 부탁드리면 이 일마다 동참하실 분들이다. 또한 동참하시겠다는 분들로 약속이 되어 있다.

우리 기독교가 이 운동을 실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은 대표

회장인 우리 교회에서부터 본을 보일 것이며, 임원들도 적극 호응하게 될 것이다. 이 일들이 잘 되어 갈 것이다.

또한 전국 도 별로 친목을 조직하여 나갈 것이다. 농어촌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갈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농어촌 곳곳에는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고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고 이들이 많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진리로 깨우쳐 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무거운 짐을 짊어졌는데 무거운 뿐이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주시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심정뿐이라며 취임소감을 밝혔다.

이날 한창영 목사 사회로 장병창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상임부회장)가 기도, 류성교 장로(예장합동 전국장로회 증경회장)가 성경봉독을, 호산나중창단의 찬양, 설교 김동권 목사, 백운형 목사(장기복학연구위원장), 심재선 목사(한국장로교부흥사협의회 총재), 최광열 장로(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이사장), 최수운 장로(예장합동 전국장로연맹회 증경회장), 등이 특별기도를, 김진호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 최윤권 목사(그리스도의 교회협의회 증경총회장)가 축사, 격려사를, 이흥규 목사(예장예신 부총회장)가 광고를, 신진록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축도로 마쳤다.



행동을 하겠는가?

우리나라는 1980년대부터 대규모 신도시개발을 해왔다. 하지만 그렇게 넓은 지역을 도시로 개발하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개발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것은 개발일정과 시한 때문에 대충하고 지나지 않았을까. 개발에 따른 이익과 그것을 통한 발전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견된 문화재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발굴지를 어떻게 보존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혹이라도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겠지만 대규모 개발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발견되었다고 할지라도 과연 어느 기일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기(工期)를 늦추면서, 그리고 발굴과 보존비용을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하겠는가를 묻는다면 묻는 사람이 이상한 것 아닐까.

경제성장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국민적 정서가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더욱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계몽하고 문화재 보존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를 제시하고 선도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간과한 부분이 이러한 것이 아닐까. 그럼에도 여전히 남의 일로 생각하거나 무관심한다면 몰랐기 때문에 겨우 남겨진 부장문화재들마저 어떻게 훼손되고 사라지게 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전문위원)에 기독교 문화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무

도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전통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오다보니 불교 유교 무속에 전문인들이다. 비중에 있어서 그렇다고 감안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대문화재를 지정하고 보존 관리함에 있어서 기독교 문화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아쉬운 대로 기독교 전문위원이 선정되어서 기독교 역사와 남겨진 문화유산의 가치를 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이런데도 정작 기독교에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모이면 00장(長)이라는 자리에 대해서는 이전투구 하듯 하면서 정말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은 물론이고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프다. 언젠가 기회가 되어서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도 말을 한 적이 있지만 발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후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는다. 이미지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이름을 달래려니 무책임이라는 압박감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제는 기독교도 이에 대한 생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니 그 때가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거나 물을 수 없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시야도 넓어져야 할 것 이런단....

이종진 목사

인천 민수남교회



2011년 경남 · 청소년 · 호프킹 임시총회 및 단합대회

지난 26일 (사)한국청소년육성연2011년맹(회장 예종길 목사, 김해 내외동)의 2011년 경남 · 청소년 · 호프킹 임시총회 및 단합대회가합성감리교회(구동태 감독)에서개최됐다. 이날은 경남 호프킹 이 · 취임식이 거행되

사(창원대원)가 ‘청소년 문제와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합성기도 후 의령지회장 진형운 목사(갈음)가 헌금 기도, 마산감리회장 류일영 목사(삼계 중앙)가 광고하고,

구 감독은 “추대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쓰임 받는 삶이되길 바란다”고 취임사를 전하고, 前 대표회장인 정용길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예종길 목사는 비전 호프킹에 대해 설명하고, 호프킹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만을 세상에 보여주는 신문 18개 시 · 군 연합회,

각계 · 각층의 지도자 초청 성향 경남 신임대표회장 구동태 감독 선임

어 신임대표회장으로 구동태 감독(합성감리)이선임 됐다.

1부 예배는 밀양지회장 손부익 목사(무안동부)의 사회로 남해지회장 박천수 목사(성남)의 기도 후 창녕지회장 이영근 목사(성산)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15절까지 성경을 봉독했다. 경남대표회장 정용길 목

정용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이 · 취임식은 진해지회장 이병곤 목사(진해성결)의 사회아래 장학위원장 허홍재 목사(전원)가 기도하고, 협의회 회장 예종길 목사가 신임대표회장인 구동태 감독에게 추대장을 전달했다.

강사 손덕호 목사(제자사랑)가 사례를 발표한 후 양산지회장 남찬양 목사(순복음큰기쁨)가 운영보고했다.특히 3부에는 신임대표회장인구 감독의 ‘한 교회 40년 성공적인 목표’에 대한 공개 세마나가 열렸다. 합천에서 본지 이성우 기자 lsw4882@hanmail.net

기하성 제60차 총회장 이정금 목사 취임예배

직전 총회장 김교신 목사 이임과 부총회장 민선기 목사 외 임원 취임식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기하성)순복음 총회는 지난 8일(수) 오전11시 사당동 그랜드 호텔에서 직전총회장 김교신 목사 이임과 총회장 이정금 목사 가 제60차 총회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김명식 목사(총무)인도로 예배가 진행되고, 김동수 목사(선교위원장)가 기도를 하고, 증경 총회장 김승헌 목사는 출17:8~16절을 인용 “아름다운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직전 총회장 김교신 목사는 무사히 이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임사를 했다. 아울러 신임총회장 이정금 목사는 직전총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취임사가 있었다.

또한 순총 5회 동문회는 신임총회장 이정금 목사에게 취임 축하하를 전달하고 최건호 목사(기성, 이증경총회장)가 축사를, 증경총회장 김영대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신임총회장 이정금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린다”고 말하고 직전 총회장의 노고에 대해 높이 경의를 표했다. 또한 이 총회장은 아름다운교단, 발전성장하는 교단,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단,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교단으로 이 끌어 나갈 것을 굳게 약속한다면서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을 다짐

했다. 신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이정금 목사, 부총회장 민선기 목사, 서기 신경섭 목사, 재무 최홍식 목사, 회계 정전희 목사, 학장 현주영 목사, 연구원장 김승헌 목사, 헌법위원장 백인완 목사, 고시위원장 여성은 목사, 교육위원장 장 정순경 목사, 선교위원장 김동수 목사

교계 여성지도자들“6·25비극 다시없길”기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전국의 여성 지도자들이 6·25를 며칠 앞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하나가 됐다. 이들은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뜨겁게 기도했다.

“민족의 어머니들이여! 일어나 기도합시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여성운동본부(총재 이태희)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6·25 상기 구국금식여성기도성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기도성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여교역자와 기독교성단체 리더 그리고 평신도들로 자리가 가득 찼다.

이들은 백의민족과 우리나라 전통 어머니 의상을 상징하는 흰색 상의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이 땅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소명에 대해 묵상하는 침묵기도로 예배를 시작했다. 그리고 ‘민족의 어머니들이여! 우리의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라는 구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다.

설교를 전한 이태희 목사(성북교회)는 “6·25가 일어난 지 60여



▲민족복음화여성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6·25 상기 구국금식여성기도성회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6·25가 언제 발발했는지,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난 전쟁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며 “우리나라 인보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현실을 깊이 살피고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해야 할 것”이라며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예배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남북문제 △한국 경제의 안정과 발전 △한국교회

와 목회자 △세계선교와 파송선교사 △일본과 독도 등 18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후 3시까지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성회에 참석한 윤 모 권사(48)는 “차라니는 후손들에게 전쟁의 비극이 대물림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평화적 통일로 남북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성회에는 텔런트 정영숙 권사(에스더구국기도회장)와 이웅경 집사(여의도순복음교회)도 참석, 구국을 위한 기도예 힘을 보탰다.

■ **시론**

이상한 문화재 관리법

유럽 여러 나라들에게서 부러운 것이 있다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 아니라 즐기는 문화로까지 만들고 있다. 때로는 자신들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이 있어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사와 문화재인 것이다.

때문에 그들은 전쟁까지도 포기하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다. 돌아보면 그렇게 지켜온 역사와 문화유산은 지금 그들을 먹여살리고 있다. 전세계의 여행자들이 유럽을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만나보기 위해서다.

한데 선진국을 따라가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현실은 문화재 자체가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보존의 상태,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개인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든...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법은 이상하다. 그 중에도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은 남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땅주인이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파다가 매장문화재가 나왔을 경우 땅주인은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일단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다음으로 문화재청이 그 발굴에 대한 최종 결정

을 내리는 것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다. 현행 매장문화재법 11조는 “땅을 파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유물 발굴과 보존, 관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건축주가 부담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문화재청은 보존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사적으로 지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그 후 관리비도 모두 발굴자 즉 땅주인이거나 건축주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누가 자기 땅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겠는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찬가지다. 그러나 혹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되면 이것을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묻어버리고 공사를 계속할 것인가?

건축주의 입장이나 사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답은 뻔하지 않은가.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나 최소한의 발굴비용이나 건축자연으로 인한 손해, 그리고 보존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등 모든 비용을 땅주인이거나 건축주가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다고 발굴된 문화재는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다. 그러면 서도 모든 비용을 대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없다면 누가 이에 대한 책임 있는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아침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유유했던 자의 유익

성경: 마태복음 5장5절 찬송가 278장

본문은 팔복의 세 번째 내용으로 유유했던 자에게 주어질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헨드릭슨이라는 신학자가 유유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계 및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태도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삼사 대씩 예수를 잘 믿어 온 가문치고 공평한 집은 그리 많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의 복을 넘어 하늘의 복까지 포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유유했던 자의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2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유익

성경: 마태복음 5장6절 찬송가 246장

본문은 팔복의 네 번째 내용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란 비록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해도 선한 일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평안하고 인내한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고 인주하려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추구하는 가정들이 되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망합니다.

3 긍휼히 여기는 자의 유익

성경: 마태복음 5장7절 찬송가 279장

본문은 팔복의 다섯 번째 내용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그가 받을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를레이라는 신학자가 긍휼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는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보고 느끼는 '공감'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나 슬픔 등을 공감하며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또한 그 복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이웃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이웃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4 마음이 청결한 자의 유익

성경: 마태복음 5장8절 찬송가 506장

본문은 팔복의 여섯 번째 내용으로 팔복의 첫 번째 내용과 같이 인간의 마음에 관한 것

로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일관단심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가정들이 땅의 것에 눈먼 가정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 볼 수 있는 믿음을 눈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5 화평케 하는 자의 유익

성경: 마태복음 5장9절 찬송가 280장

본문은 팔복의 일곱 번째 내용으로 화평케 하는 자와 그에게 부여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할 수 있는 모든 다짐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수습하려고 노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들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화평을 만드는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광의 칭호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6 핍박 받는 자의 유익(1)

성경: 마태복음 5장10절 찬송가 140장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 내용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와는 달리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핍박받는 자'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의로운 고난에 참여하는 가정들이 되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7 핍박 받는 자의 유익(2)

성경: 마태복음 5장11절-12절 찬송가 364장

본문은 팔복의 마지막 내용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해 추가적인 해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이 복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를 위하여'라는 것은 바쁜 시간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안일한 마음과 싸우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다 핍박을 당하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는 가정들이 되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8 이렇게 되리라(1)

성경: 마태복음 5장13절 찬송가 378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세상에서의 너희의 역할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라 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소금은 세 가지의 의미와 역할로 사용되었는데 소금은 반짝이는 순수성과 흰색으로 인해 순결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식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며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의 활력소로 멋지게 쓰임 받는 소금과 같은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이렇게 되리라(2)

성경: 마태복음 5장14절-16 찬송가 379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의 역할 뿐만 아니라 빛의 역할 또한 함께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란 수동적인 역할이라고 말한다면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지식과 사랑 기쁨의 최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세상의 암흑과 무지로 인한 죄를 말씀의 빛으로 비추고 구원의 기쁨을 널리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한줄기의 빛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비추고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10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

성경: 마태복음 5장17절-18절 찬송가 288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자 온 분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모순이 없으며 폐해져야 할 죄악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없이는 우리의 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고자 오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우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1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라

성경: 마태복음 5장19절-20절 찬송가 238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계명대로 가르치고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성경을 볼 때에 전체적이면 통일적인 관계에서 성경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특정 구절만 강조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

에 덜 소중하고 더 소중한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마다 특정 말씀에만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2 하지 말아 야 할 것-살인-(1)

성경: 마태복음 5장21절-26절 찬송가 526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개개의 율법을 들어 그 율법이 본래 뜻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노하는 마음이 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경멸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언행을 조심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3 하지 말아야 할 것-간음-(2)

성경: 마태복음 5장27절-28절 찬송가 212장

본문은 제6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시작하시면서 제5계명과 같이 간음에 대한 실제적 행동뿐만 아니라 그 내적

동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에 옮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간음하는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도 간음한 사람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늘 스스로의 마음을 굳게 지키고 기도함으로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육체의 정욕을 누르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14 잘라서라도 가야하는 곳

성경: 마태복음 5장29절-30절 찬송가 519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의 대한 경각심으로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몸의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 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수해야 할 자기 부인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기부인이지만 그 결과는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역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따를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이의 현금



지난 주일, 세브란스 병원의 한 젊은 여성 의사 선생님이 노숙인을 위한 주일예배(오전 7시 30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오후에 밝게 웃으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노숙인 예배에서 다른 어떤 예배 때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조는 사람도 없고 예배도 경건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열 자리에 앉았던 분이 반갑게 인사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현금을 할 때에 100원짜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딸그락 딸그락 나는데 정말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노숙인 예배에 처음 참석한 까닭에 받는 감동적인 감동일 수도 있으리라 여깁니다.

하지만 과연 다른 일반인들이 드리는 예배보다 특별히

부족한 것은 별로 없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일반예배에서 바치는 현금과 이분들이 바치는 현금과 비교할 때에 액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야 차이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300원을 받기 위하여 3시간을 걸어야 하는 이들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드리는 100원 200원 혹은 1000원짜리 지폐를 드리는 것은 그 의사 선생님의 감

동처럼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로 여겨집니다. 어떤 때는 제 손에 고맙다며 10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시는 노숙자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주님께서 그를 통해 베푸시는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루 한단 기쁨으로 영성의 길 오르기 하루에 세 사람은 옷에 민드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천국도 있습니다.

〈연〉 산마루서신중에서

성경적 사도행전교회로 부흥케 하며 신랑예수 맞이할 신앙성장 위한 종말시대 바른성경신앙 말씀무장 부흥성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 부흥회 내용과 특징

사도복음 성령 영성교육을 꼭 받아야 할 분

1. 사도행전 초대교회 신앙회복 사명충성하게 됩니다.
2. 속죄구원 부활 천국순종 영생 계림신앙으로 무장됩니다.
3. 육에 속한 어린이가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됩니다.
4. 종말 추수 환난 심판 때 천국 알곡으로 결실하게 합니다.
5. 부부가정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6. 1108명이 전도된 배가전도 전략집목 진정한 부흥이 됩니다.
7. 바울같이 1~3년 지속적 전도로 성경적 교회로 성장하게 함



강사 박길 찬 목사
교회: (054)439-3353
H.P: 017-527-9191

- 경북 상주 출생
- 칼빈신대, 안양신대
- 상주 신상교회 개척, 건축
- 김천어모교회 개척 봉헌
- 오산 광은기도원 초대 원목
- 부천 상광교회 전도목사 (1108명 전도 성과)
- 청교도 부흥사회 상임회장
- 세계한민족부흥협의회 상임회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회 부총재
- 김천 예수원, 교회

“성경신앙 배가전도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들”

- | | |
|--------------------|----------|
| 부천삼광교회 | (심원홍 목사) |
| 서서울중앙교회 | (한영훈 목사) |
| 시흥 새하늘교회 | (박승식 목사) |
| 김천 황금동교회 | (이현세 목사) |
| 부천 새관조교회 | (김남혁 목사) |
| 시흥 성령교회 | (김명주 목사) |
| 인천마가다라방교회 | (박장원 목사) |
| 경산 새경산교회 | (이장우 목사) |
| 동해 명성교회 | (이영택 목사) |
| 부산 금샘은혜교회 | (신승달 목사) |
| 대구 참사랑교회 | (간석광교회) |
| 이외 다수 교회 집회 인도.... | |

진정으로 변화되는 성경신앙훈련 믿음에서 천국까지

성경신앙대학

(이제는 신앙의 병든자, 약자도, 입원 치료받을 때)
매주 : 월~수, 목~토 연중 입원 교육 치유
10명~100명 교회별, 기관, 단체, 팀별 입소
강사 : 박길 찬 목사(김천 예수원 원장)
입소비 : 1인 2박 3일 4만원(숙식일제)
입소교회에서 식사준비하면 사용료 2만원
참고 : 교육 교재는 각자 구입
교육 신청 문의 017-527-9191 / 054-439-3353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559 김 천 예 수 원

주소 :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559 김천예수원 예수원교회
원장 : 박길찬 목사 CJTN신문방송 및 저지스티임즈 상임이사, 세계부흥사협의회 부총재
(교회집회 강사초청은 연락주세요) ☎054) 439-3353 H.P 017-527-9191
찾아오시는 길 : 교동편 무궁화호, 새마을호 김천역 하차, KTX 김천구미역 하차

웨신총회 2011 전국교역자 하계수련회 가져

『교단화합과 발전에 저해되는 일보다 협력하는 일에 힘써 달라』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는 2011년 전국 교역자 하계수련회를 지난 6월13일(월)부터 15일(수)정오까지 2박3일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 콘도미니엄에서 개최했다.

『성령으로 뜨겁게』(행1:8)라는 주제를 정하고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하는 준비위원의 결단으로 시작된 2011년 웨신총회 수련회는 대화장 성홍경 목사(총회장)의 환영인사가 있은 후 준비위원장 김춘택 목사의 집례로 개회예배가 진행되고 협력위원장 정일장 목사가 기도를, 경전노회장 김중국 목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이어 대한노회 유윤주 목사가 특송을,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신앙훈련”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화총무 신연창 목사가 인사 및 광고를 전하고 대화교본이원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대화장 성홍경 목사는 “신앙훈련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힘쓰며, 교단발전과 단합을 강조했다. 또 대화장 성 총회장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자고 말하면서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2명의 정탐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에 예를 들면서 교단의 화합을 위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데 있다고 말하고 또 한 선을 행하는 삶은 신앙훈련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면서 원수일지라도 선을 베풀 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요 남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언어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총회를 바로 세워나가는데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22시부터 24시까지 총회임원과 실행위원이 모임을 갖고 교단발전의 저해되는 일련의 사태를 지적하고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회발전과 화합을 위하여 각 노회가 합심단결로 협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14일 새벽에 동서노회장 심순범 목사의 예배인도로 경전노회장 김중국 목사가 기도를 경향노



회장 김학기 목사가 성경봉독을, 부대회장 이재갑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설교하고 축도로 마쳤다. 이어 각 노회별로 모임을 갖고 총회와 노회, 지교회를 위한 기도를 가진 뒤 오후 3시부터 총회장배 노회별 즉구대회 및 당구대회를 가졌다.

15일(수) 오전 6시30분 대화장 정기회 목사 인도로 폐회예배가 진행되고 강원노회장 박영남 목사가 기도를, 한서노회장 하종우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부대회장 이흥구 목사는 “성령의 불길”이란 주제로 설교하고 축도로 마쳤다.

이어 대화장 성홍경 목사는 웨신총회 원로이며 중경총회장 임철환 목사에게 공로패를 증정하고, 김성호 목사, 김용태 목사, 이영남 사모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전국교역자 수련회에서 총회장배 즉구대회 및 당구대회에서 서울노회 허성인 목사가 우승, 경전노회 장창윤 목사가 준우승, 동서노회 이병만 목사가 3위

를 하고, 각 노회별 즉구대회는 우승 수도노회, 준우승 동서노회, 3위 남부노회가 차지했다.

이어서 총회 산하 각 노회 목사, 사모 등 140여 명이 지켜본 가운데 행운권 추첨을 통해 모은 회원들에게 선물이 돌아갔으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2011년 전국교역자 수련회가 막을 내렸다.

한편 웨신총회는 2011년 전국교역자 수련회를 통해 특강을 열어 본 교단 직영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 정기환 박사가 특별강사로 나서 “정체성의 발견과 REVEL”을 주제로 열강에 나서자 많은 교역자로부터 목회하는데 큰 활력소가 되었다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또한 웨신총회 총회장 성홍경 목사는 전국교회가 신학교주일 특별헌금을 모금, 수련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직영신학교 학장 정기환 박사, 웨스트민스터 목포신학교 학장 조광표 박사, 서울천안신학교 학장 장창윤 박사, 등에게 전달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

학장 정기환 박사, 서부 아프리카 방문

서부 아프리카 적도지역에서 겪었던 일이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밥 한 숟가락을 입에 가득히 넣고는 꼭 다물어진 입이 열리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요구되었다. 돌이 가득히 먹혀진 밥은 그 든든한 이빨을 무참히도 부서뜨리기에 졌던 것이었다. 저들은 돌팔이를 먹고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였다. 닭도 아닌 인간인데 말이다. 서부 아프리카에서의 오지는 우리에게 찢어지는 발을 기대하는 것은 꿈과 이상일 뿐이었다.

현지식의 부담으로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못한 탓에 기진한 우리에게 배운 선교사님의 자비는 그 인근지역에서 제일 비싸고 좋다는 음식점으

로 가자고 한다. 무려 차원으로 한 시간 이상의 광야를 달려서야 안내되어졌다. 첫눈에 놀란 것은 서로가 아는 사람이 아닌지라 무언가 낯익은 듯한 외모에서였다. 분명 한국인일 것이다. “와! 여기에서 또 한국 사람을 만나게 보네!” 엉겁결에 튀어나온 말에 상대방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한국인이 아니라는 뜻의 표현이다.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말도 없다.

“혹시 한국인 아니세요?” 지금 같은 세태 어디가도 만나 부딪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하듯 본체만체 하기 일쑤지만 수십 년 전만해도 아니다. 이웃집 친구라도 만난 듯 별의별 것을 다 물어가며 대화를 해가던 시절이니 이 번 꿈동이 나

라에서 동족을 만났다면 이는 기적에 가까울 노릇이었다. “여기에서도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네요. 포기하고 살아야 겠구먼...” 갑자기 튀어나오는 음식점 주인 언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정도 빠뜨려지고 말도 비꼬인듯하기도 하고 그의 투정어린 모습은 분명 기쁜 만남만은 아니라는데 의의가 없어 보였다. 원수 만난 것도 아니고 빗받으러 온 것도 아닌데 무슨 연고 인고...

“저는 정말 한국이 싫고 한국 사람이 꼴 보기 싫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또 다시 만나게 되네요. 지긋지긋한 한국.” 우리의 일행이 결국은 저 사람의 인생에 금을 그어 놓고 있는

산골을 지나는 중에 특이한 집이 있기에 한번은 묵어하는 분인이 들러나 보자 했더니 그 양반도 비슷한 말을 한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접촉을 피하고 자급자족하며 살아간다고 하였다. 먹 거리는 논과 밭에서 거의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하더라도 생필품은 어떻게 구하나 했더니 비누는 겨로 만들어 사용하고 창포에 머리감듯 하는 적어도 조선시대 내지는 몇십년전 시골생활에서 익혔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년 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파랗게 자라나는 어리고 젊은 딸들은 아예 진저리를 치고 있었다. 도시 생활과 단절시켜지고 문명과 담을 쌓고 살



정기환 박사

사단법인 기독교총회 이사장,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학술위원장,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장,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본지 CJM원승 상임이사, 부천천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아니다. 지나칠 정도의 그 사랑은 자그마한 서운함에도 견디지 못하여 도리어 배반의 식으로 느끼게 만드는 상 싫었다. 그에 대한 반증이 아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친교 속에서 아름다움이 꽃 피고,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는 피조물임을 교훈해 주고 있다. 모이기에 힘쓰기를 원하시고, 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이웃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곳에 진정한 희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운 사람들이 있어도 저들을 모두 버리고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는 아니다. 저들은 사랑에 갈급해 있고, 그 사랑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헛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인 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신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훈련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정기환 박사(D.D., Th.D.)
*사단법인 기독교총회 이사장 *세계원주민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사(목교)대통령 총재 *전원주교회의 담임목사 *저서 성경의 빛과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황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불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인수를 받습니다.
· 성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 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 집 학 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신학교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대신위신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 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인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대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영교수(고대근동학) : (Ph.D.)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탈리아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명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Ruhr-Universität Bochum
김종진교수(성경신학) : (Ph.D.)Pacific International University
임철환교수(교회정치) : (Ph.D.)School of Bible Seminary
최병환교수(비교종교학) : (Th.D.)Life University
박광보교수(주교교목) : (D.D.)Canada Christian College
장창수교수(헌법) : (D.D.)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學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Canada Christian College
박성국교수(교회음악) : (D.S.M.)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안병삼교수(교회행정) : (Th.D.)Canada Christian College
이희순교수(선교학) : (D.D.)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 韓國外國語大學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 : (D.Lit.)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칼럼

빨간 박지원의 3류 저질개그



지난 4월 북한인권법 문제로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부성 과 임씨를 과정에서 “그래! 박지원이 종북 빨갱이다. 어쩔 수에 오르자 ‘농담’ 이었다고 얼버무린 박지원이 17일 전남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전남시·군의회 의장회의’에서 특강을 통해 “누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만 큼은 했고 보리고개도 없앨 수 있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을 깎아내렸다. 터진 입으로 무슨 말인들 못할까 마는 ‘미친’ 소리로 들린다.

물론 민주당이 죽을 주고 있는 관에 민주당 중진(?)으로서 별의별 수

작을 다 동원할 수는 있어도 이따위 망언은 삼갔어야 했다. ‘대한민국 의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은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국정의 최고 사령탑이다. 박정희가 아니어도 경제 발전은 했다는 망발은 세종대왕이 없어도 한글은 만들어졌다든 3류 개그와 다를 게 없다.

비근한 예로 2002년 월드컵 당시 한국축구대표팀을 4강에 올려놓은

것은 전적으로 허딩크 감독의 지도력 덕분이었다는 사실이 월드컵 직후 국가대표팀 감독 바통을 이어 받은 본푸렐레 감독이 똑같은 선수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이끌고 세계랭킹 135위에 불과 한 베트남 팀과 경기에서 3:0으로 패배하는 치욕을 당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박지원의 ‘노 소리’를 반박하고도 남는다고 할 것이다.

한 가지 더 보탠다면, 임진왜란 당시 전국토가 왜적의 말발굽에 짓밟혔어도 국장지대인 호남벌이 온전하여 수군이 근거지를 삼아 전쟁을

‘박정희 없어도 경제발전’ 주장은 ‘세종대왕 없어도 한글창제’ 망언

돈금없이 걸려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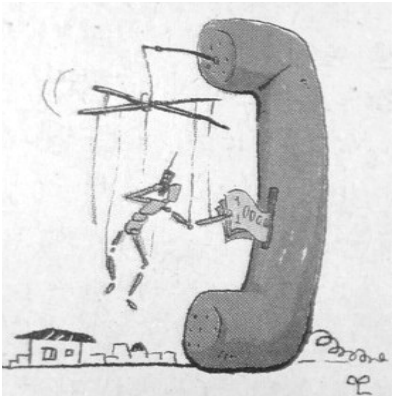
전화목소리 카드로 사기입니다

다시 고개를 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속속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모(44.여)씨는 최근 모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A모씨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온 것이다. A씨는 “어떤 사람이 모지점 옆 찾아와서 당신이라며 출금을 요청 한다”는 것이다. “불법자금 세탁과정에서 당신 통장이 이용된 것 같다”는 A씨의 말에 놀란 김씨는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계좌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다 알려준 것이다.

A씨 일당은 김씨 개인정보를 이용해 모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로 800만원 을 대출받아 달아났다. 여신금융협회는 30일 최근 카드로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확산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사기범은 이용자를 꾀뜨겨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통장에 불법 자금이 입금됐으니, 특정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고, 금융 이용자는 본인의 카드로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범인의 통장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이용해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해 올 경우 일절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민약 사기범들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을 때에도 거래은행에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해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당황해 하지 말고 즉시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평소에 해당 은행의 전화번호와 금융감독원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문자나 전화로 이와 같은 전화가 걸려왔을 경우 해당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통일교, ‘여수디오션 리조트 회원권’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이용하지 맙시다
여름휴가에 통일교 관련 시설물 이용하지 맙시다

통일교는 교묘하게 기독교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침투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종교로 활동하여 통일교로서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여수개발을 전담한 통일교 회사인(주)일상해양산업은 관광·관광 경제자유구역화양지구개발사업과 여수디오션리조트 특구개발 사업시행업체이다.

여수디오션 리조트는 2009년 12월 공사장 휴탕물 방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된 여수디오션리조트 공사가 7개월 만에 다시 재개되어 진행중이며 골프장은 2011년 12월 정식 오픈이 가능하다고 통일교 신하 통일그룹 (주)선원건설 측이 밝혔다.

통일교 기업체인 일상해양산업은 “2008년 디오션리조트 콘도와 워터파크를 개장한데 이어, 올해 2011년에는 디오션CC와 디오션리조트 호텔을 개장할 예정할 예정이다”며“골프장-호텔-콘도-워터파크-컨벤션센터를 갖추어 2012년 세계박람회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오션리조트의 경영은 현재 통일교 기업체인 용평리조트가 맡고 있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디오션리조

트를 수 있다는 뜻에서 이 충무공이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이 말을 뒤집어서 ‘약무충무공 시무호남’ 이라고 한다면, 박지원이 수궁을 할까 부정을 할까 분간이 안 선다.

약무박지원 시무했별이요, 약무박지원 시무대북뇌물사건이며, 약무뇌물사건이면 시무김대중노벨상이요, 약무박지원 시무중북빨갱이래면 박지원이 동의를 할까, 반발을 할까? 박세리가 없어도 한국 선수 누군가가 1998년 US오픈 우승은 했고, 김연아가 없어도 한국 피겨스케이팅 선수 누군가가 올림픽을 제패했다고 잡소리를 늘어놓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망언(妄言)이다. 박지원처럼 지역주의 망령(亡靈)과 편견에 사로잡힌 부류가 있는 한 호남이 정치사회적으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백승목 칼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칼럼

내가복음

오늘날 읽혀지고 있는 성경은 정경(定經)이라 하여 무려 1,600여년 이상에 걸쳐 40여명의 다양한 문화와 민족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어 만국공통의 성경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성경과 타 종교의 경전들이 다른 것은 이렇게 집대성된 계시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일관성과 창조부터 종말까지 인류의 흥망성쇠를 역사적 사건으로서 절대적이고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은 구약의 약속 39권과 신약의 약속 27권 도합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절정을 이룬다. 이 복음은 4복음서라 일컬으며 이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같은 시각으로 기록되었다 하여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특성이 다름으로 제 4복음서라 하기도 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증거자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는 없는 것이다. 흔히 직통 계시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비 신앙체험 중에 하나님에 불과한 것일 뿐이다. 즉,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각양각색의 “내가복음”이 용감하게 만들어져서 선포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내가복음은 무지와 권위주의와 세속적 탐욕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의 불량모조품이지만“은혜 ‘라는 위조 상표로 포장되어 싸구려로 잘 팔리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절도이며 강도짓인 것이다. 일지반해(一知半解)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을 대강만 알고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천박한 지식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내가복음”의 생산자들이 내가복음이라고 이질적이고(異質直告)하는 것이 아니고‘성경말씀’이라고 역지를 부린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무지한 자들인 것이다. 양식 있는 사람은 모르는 것을 억지주장하지는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영생의 복된 삶을 살게 하지만 화인맞은 심령의 내가복음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든다. 일찍이 창조 때부터 내가복음의 최고 전문가인 사탄이다. 니콜라당의 교주 니콜라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택하여 안수 받은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비어있는 홀로 착각하는 무지하고 악한 영들이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기 때문에 ‘내가복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이 바로 복음인 것이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철칙인 것이다.



이준철 목사

목사가 새벽예배 불참한다고 90대 노인 폭행
선교회 내 기강을 바로 잡겠다며 노인의 얼굴과 발, 손바닥 등 구타해

세상에 목사가 이럴 수가 있나? 90대 고령인 노인을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다고 폭행을 가해 타박상을 입힌 목사를 경찰은 구속했다.

지난 2일 김 모 목사(63)는 4월 30일 전북 군산 모 노인 선교회에 입소해 요양 중인 A씨(91·여)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새벽 예배에 불참하자 나무 막대로 A씨의 양쪽 발바닥을 20여 차례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구타해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김 목사는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A씨가 넘어지면서 얼굴에 멍이 들었다면서 폭행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목격자 등 20여 명의 관련자를 불러 수사한 뒤 김 목사를 구속했다.

〈연합뉴스〉는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김 목사가 선교회 내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명목으로 구타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목사의 완강하게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결국 구속했다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석교회



담임 성승경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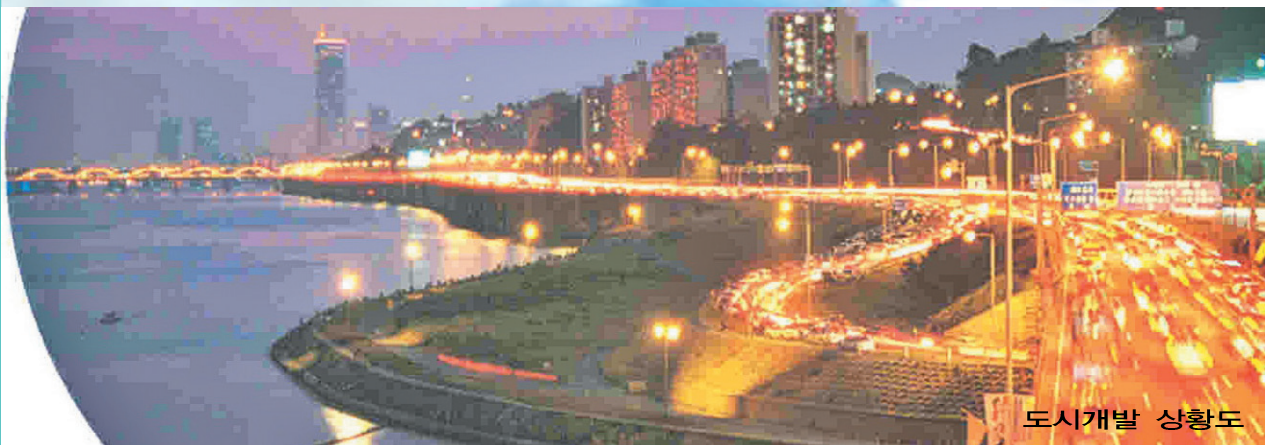
443-8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1170-7
☎031)204-5580 011-721-6038, 010-3938-3983

당진 명품 땅 양로원 전원주

떠오르는 당진! 축복의 땅 당진!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꿈과 낭만, 희망의 도시, 당진에 투자 가치가 보장되는 명품 땅 양로원 전원주택지에 VIP 당신을 초대합니다.

인구 증가로 곧 당진이 시로 승격이 되며, 미래가 밝은 당진! 청정지역인 당진에 양로원 전원주택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땅 26,400구(8000평 계획관리지역)을 평당 250,000원에 지주가 법무사 관리하에 매매합니다.

교통편 : 서울, 인천, 부천, 안양, 분당에서 약 1시간 대, 인근에 관광단지 110만평 골프장 호텔 등 개발계획 현재보다 더 빨리 서울로 가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개발 상황도

연락처 : 010-3733-9862 전현풍 장로

맡음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디광교회로 오십시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시96:6-9)

“종교의 위업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한국의 족속들이 영행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께 돌릴지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이길지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라.”

예배안내			
세월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	매일 새벽 5:30	본당	영광예배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영광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행복예배(크리스마스)
주일 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찬양예배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월요일기도회
각구역예배	각구역마다 지정	각구역마다 지정	매주마다 지정

교역자교 예배안내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원지(제12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원지(제12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2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동부	주일 오전 11:30	별관 2관	중학교 1~3학년
고동부	주일 오후 9:30	별관 2관	고등학교 1~3학년
청년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34세 미만
청년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35세 이상 미만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10-9
대광교회 대표전화: 031)384-7408 부목사실: 384-5744, 385-8833

최원수 장로 폭발적인 전도축제 국경을 초월했다



본부장 최 원수 장로

한 국도농선교회 최원수 장로(본부장)는 2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 선교회

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전도운동을 일으켰으며, 현재 국경을 초월하여 약 2000여 교회에 초청을 받아 전도축제 집회를 인도했다.

최원수 장로는 천국 가는 약도인 전도지를 발간, 국내외적으로 약 1만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 장로는 선데이 전도 축제를 반복해서 열고 있어 영혼 살리는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선데이 축제 전도는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수준까지 자연스럽게 전도하면서 실천적 전도로 훈련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원수 장로, 신영자 권사 부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불신자들을 생

각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구원할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고 눈물이 쏟아진다는 것이다. 때로는 얼마나 급하면 분초를 가릴 틈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니 된다. 막아야 한다. 아니 어찌나 저 영혼들을 불신 지옥에서 건져내야 한다며 선물을 사들고 뛰어간다. 그러면서 그를 불뚫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은 그의 머리로 손으로 떨어지는데 감동이 안 일어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최 장로님, 신 권사님 부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불신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살리는 사역을 해 온 것이다.

최원수 장로가 이처럼 생명을 내 놓기까지 눈물로 기도하며 전도하게 된 동기가 여기 있다. 최 장로는 81년 12월에 잠시 죽어서 영혼의 세계를 체험하고 깨어났다고 한다. 최 장로는 "지옥은 끔찍"했다고 말한다. 죽었다가 깨어난 그날부터 주위에 불신자를 바라보면 아! 저 분도 죄용서 받지

못하면 훗날 지옥에 떨어져서 엄청난 고통(말로 표현이 안 됨)을 당할 텐데, 하고 너무도 안타까워서 전도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신영자 권사는 "불타는 지옥"이란 영화를 보고 한 없이 울었다고 한다. 이유는 저 많은 불신자들이 불타는 지옥, 고통스러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는 것이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의 가족, 이웃, 친구, 아는 사람들이 유혹할 못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한다.

지옥 가서 영원히 유희할 못에서 불로 소금 뿌리듯 뿌리면 꼭 미꾸라지에게 소금 뿌린 것처럼 뜨거워서 튀고, 구르고 안절부절하면서, 아이고 뜨거워 불 좀 달라고 애원을 해도 불 한 방울 도움 받지 못하는 지옥으로 자꾸만 떨어지고 있는데, 이를 안다면 어찌 전도 안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 장로, 신 권사 부부는 황토에 구운 소금! 예찬 미네랄소금 등을 발명특허를 내어 수십 가지



도농선교 세미나

저 좋은 천국 나만 갈 수 없잖아요 영혼구원에 눈물로 기도하며 선데이축제 전도를 통해 못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다



도농선교 세미나 홍보물

의 소금을 구워내는 소금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수천도가 넘는 소금 불가마 앞에 기도 굴을 만들어 놓고 한국도농선교회를 위하여 전국 153개 도농

선교회 지회를 위하여 세계를 향한 복음전도를 위하여 때론 장기 금식을, 단기 금식을 하면서 매일 두 부름을 꿇고 기도하는 권사요, 기도의 어머니이다. 또한 기도가 끝난 뒤 대구 시내를 돌며 전도에 힘쓰고 있다.

최원수 장로는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출석하다가 쉬는 사람들이 많은데, 무려 그 수가 1500만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낙심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불신자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최 장로는 문제없다고 말한다. 원인을 알면 낙심자들의 전도가 더 쉽다는 것이다.

낙심자들이 구원의 확신만 갖게 되면 새 출발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사실 낙심자들에게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여 전도한 경험이 많았음을 고백하고 있다.

최 장로는 선데이축제 전도 옥토 만들기 위해 섬기는 35가지를 발표한다.

1) 여름에는 팔빙수, 2) 겨울에는 호떡, 3)골목청소, 4)출근길 종이컵에 딱따래 나눠주기, 5)경로당 청소와 대접, 6)경로잔치, 7)반찬 나눠주기, 8)김치와 떡국 이어지기 위함이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양날개로 무장한 통해 거룩한 다음세대를 통해 진정한 부신과 대한민국과 열방의 회복이 기대된다.

15)황토소금 나눠주기, 16)마스크 나눠주기, 17)방향제 나눠주기, 18)어린이에게 풍선 나눠주기, 19)구두 닦아주기, 20)아파트 경비 아침 드리기, 21)아파트 관리직원 선물 드리기, 22)환경미화원 초대, 23)아파트 경비 초대, 24)교회 올 때 택시 타는 주일 정해서 전교인 이용, 25)경찰관, 26)119 요원, 27)소방관 초청 감사파티, 28)혈압측정하기, 29)장애인 쇼핑 및 외출 돕기, 30)원장, 간장 나눠주기, 31)생수 나눠주기, 등을 하고 있다.

한국도농선교회 본부장 최원수 장로는 불타는 지옥을 체험하고 다시 살아나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일한 결과 현재 전국 도농선교회 지회가 153개 지회가 있으며, 회원 교회가 1000 교회, 22개국 전도 집회를 인도 했으며, 단기선교를 통해 외국에도 힘쓰고 있으며, 2011년 선데이축제 전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다.

또한 최원수 장로는 수십 종류의 전도지를 주문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황토에 구운 소금과 예찬 미네랄소금 등을 전도지 문구를 넣어 포장해서 전도용으로 만들어 국내외적으로 1만여 교회들이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농선교회 본부

연락처 : 053-961-0691~3

http://kcgm.net

거룩한 세대여 일어나라 “2011 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수영로교회에서 가진 8시간 기도회, 6천 청년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참석자들, 정직운동·헌혈운동·선물운동·종교기도·북한후원 등 작정 다음세대가 사회와 민족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룩한 세대로 구별하기 위하여 6천명의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밤을 지새웠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어웨이크닝 기도회가 올해는 '더 그레이트 어웨이크닝 2011'로 새롭게 탄생하며 6월 12일 수영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어웨이크닝연합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기도회는 ▲1부(Holy Generation)▲2부(Onething)▲3부(Mission) 등 총 3부로 진행되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다음세대들과 함께 기도했다. 민족을 새롭게 하는 거룩

한 세대들의 기도소리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8시간동안 이어졌다.

1부(Holy Generation) 설교자로 나선 이찬수(분당우리교회) 목사는 "골리앗 같은 죄악을 향해 담볼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십자가 능력을 의지해 나간

가정과 부신복음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드려

다면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자신과 교회와 사회 등을 위한 회개기도가 1시간 20분가량 이어졌다.

2부(Onething) 설교자로 나선 김용의(순회선교단) 선교사는 복음의 본질을 강조하며 "십자가와 그리스도에 믿음의 근거를

바로 세우라"고 당부했다. 이어 가정과 부신복음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이어졌다.

3부(Mission)에서는 북한영상과 새터민들과 함께하는 북한을 위한 기도회로 뜨겁게 진행됐다. 특히 이 시간에는 북한 선

교를 위한 헌금 작정과 함께 다음세대가 사회와 민족의 새로운 대인으로서 세워져 정직운동과 도시정화운동, 선물운동, 각 구별 교회연합과 네트워크 등 은, 오프라인에서 영적 클린 운동을 선도하는 주체로 이 시대의 거룩한 세대로 구별될 것을 결단했다. 경북 왜관에서 왔다는 정



새별(예관교회) 청년은 "이번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대구 경북지역에도 이런 연합기도회가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처에서는 오는 8월 경 수영로교회에서 '어! 성경이

읽어지네'의 저자 이애실 사모 초청, 말씀집회를 준비했다. 이는 기도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의 결단위에 말씀으로 이어지기 위함이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양날개로 무장한 통해 거룩한 다음세대를 통해 진정한 부신과 대한민국과 열방의 회복이 기대된다.

세계최초 PC형 원전 칼라주보인쇄기

2011년 신제품!!

세계최초 PC형 3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FORCJEC전사용 분당최대150매 고정 직렬 헤드로 세계최고 150ppm 장당 잉크비 20원 (20%차트)

대용량 잉크로 대량생산 잉크(4EA) 이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 없습니다.

ADF 옵션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A 사이즈, 주보까지

최대적재 용량 2,500매

-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 작업시간단축
- ★ **저렴한 칼라비용**
컬러유지비 80%절감
⇒ 장당 20원 (20%원고)
-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사무환경 최적화
- ★ **Flexibility**
최대 548mm 인쇄
⇒ 다양한 출력물제작

- ★ **High Speed**
150매/분 (9천 매/시간)
⇒ 작업시간단축
- ★ **One Pass Two Color**
드럼2개 동시장착
⇒ 동시 3도 인쇄
- ★ **Color Performance**
1칼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 풀 칼라 구현 효과
- ★ **Flexibility**
최대291X412mm (카드, 봉투, 엽서)
⇒ 다양한 처리능력

High Speed

- ① 분당 150매의 고속출력
- ② 3도 양면주보 500부 인쇄시간 9분
- ③ 칼라드럼 교환 없이 동시 3도 인쇄
- ④ 고속, 낮은 코스트로 시간 비용 절약

High Quality

- ① 600dpi의 고 해상도 출력
- ② 이미지 및 작은 글씨도 선명
- ③ 독자 3도 인쇄기술로 칼라인쇄
- ④ 최대 인쇄 사이즈 291X412mm, 용지46~210g/㎡

세계최초! 세계최저!!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칼라!

이미 2,000여 교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컬러 복사기, 주보 인쇄기, 양면 (음성), 팩스 (음성), 스캐너, 흑백 복사기, 흑백 프린터

PC형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배!!

최고 90% 이상의 비용절감과 제판기 인쇄기 복사기 프린터 기능을 동시에 한대로 갖춘 고효율성! 뛰어난 내구성과 고해상도의 다양한 컬러인쇄!!

2011년 신제품출시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1,595,000

컴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890,000

중형제본 & 접지기 BS-A3까지 중형제본 접지 1장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매까지 가능

주보접지기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합하는 간격조절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등 디지털 컬러 주보 복합기 2,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H·P : 010-5779-0691, 010-3651-8572

주식회사 영광기업 1588-0691
Glory Enterprise Co., Ltd. www.jubo114.com

종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호세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764-5890~2 Fax. 02)764-5893 공장. 032)551-4114